

『Suśruta-samhitā·Sūtrasthāna』의 제1장~제15장까지 語釋을 통한 ‘Āyurveda(아유르베다)’에 관한 연구(I)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¹ ·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韓醫學研究所²

徐志泳¹ · 金基郁¹ * · 朴炫局²

关于Āyurveda研究

通过『Suśruta-samhitā·Sūtrasthāna』部分语释

徐志泳¹ · 金基郁¹ * · 朴炫局²

¹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²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韓醫學研究所

『Suśruta-samhitā(妙闻集)』是印度传统医学最重要的经典著作之一，与『Caraka-samhitā(闍罗迦集)』以及成书于八世纪的『Astangahrdaya-samhitā(八心集)』(内外科综合概要)并称‘Āyurveda(阿输吠陀)’的“三位长老”，至今仍是当代印度‘Āyurveda(阿输吠陀)’正规教育所采用的主要教科书。

Suśruta-samhitā(妙闻集)』是卷一“总说”46章、卷二“病因论”16章、卷三“身体论”10章、卷四“治疗论”40章、卷五“毒物论”8章、卷六“补遗”66章等总共186章构成的。其作者为苏斯鲁塔(Suśruta)，故此书亦称『Suśruta-samhitā(苏斯鲁塔本集)』。『Suśruta-samhitā』的成书年代无法确定，虽然不乏认为其成书年代可以上溯到纪元前若干世纪者，但现今一般倾向于认为其传世本的形成是在公元3~4世纪。

如果与韩医学加以比较，可以说在经典的形成与流传方面，‘Āyurveda(阿输吠陀)’的“三位长老”与今本『黄帝内经』，无论是在历史地位、流传与分合、内容形式及重要性等许多方面，均有极大的可比性。

然而不论是想真正了解‘Āyurveda(阿输吠陀)’，还是想对不同医学体系做比较、交流方面的研究，或是全面考察医学与社会、哲学等等的关系，仅仅阅读综述性的研究文章与著作总是不够的。细观而真正了解经典原貌时所能体会到的真实感。因此，试图了翻译『Suśruta-samhitā』。

『Suśruta-samhitā』是用梵语写的，所以很难接近。以下借助大地原诚玄的1943年日译本『スシュルタ本集』之第一卷“总说”而廖育群的『阿输吠陀-印度的传统医学』“妙闻集·总论篇”的主要内容译出。

如今西医体系获得了普遍性，其他文化圈的传统医学消灭了。然而其中韩医学和印度传统医学‘Āyurveda(阿输吠陀)’仍然保持了生命力。从而，论者通过翻译‘Āyurveda(阿输吠陀)’医学经典即『Suśruta-samhitā(妙闻集)』的“总说”，而且要贡献扩大韩医学和东洋传统医学的范围。

关键词：Suśruta-samhitā(妙闻集)，Āyurveda(阿输吠陀)，translation

I. 序論

인류가 존재하고부터 건강과 장수에 대한 본능적

* 교신저자 : 김기욱.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동국대학교 한
의과대학 원전외과학교실.
E-mail : kkw@dongguk.ac.kr Tel : 054-770-2664

접수일(2009년 10월 13일), 수정일(2009년 11월 19일),
게재확정일(2009년 11월 22일)

인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의학은 인간과 함께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Āyurveda(아유르베다)'라 총칭하는 인도의학의 기원이 어디까지 소급되는지는 알 수 없다. 오늘날 'Āyurveda(아유르베다)'가 太古시대(5000년 이전)부터 존재하였다고 믿는 인도사람이 많지만, 'Āyurveda(아유르베다)'라는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 전달 가능한 지식으로 된 것은 빨라도 기원전 5~6세기이고 그 이전은 주술이 의료의 중심을 점하고 있었다. 의료경험이 누적됨으로써 이것을 체계화시키기 위한 원리가 필요하였고, 우주의 근본 원리를 추구한 Upaniṣad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그 결과 인도의학의 경전이 탄생하게 되었다.¹⁾

『Suśruta-saṃhita(妙聞集, 수슈르타상히따)』은 인도 전통의학²⁾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의 하나로 『Caraka-saṃhita(闍羅迦集, 짜라카상히따)』과 8세기에 성서된 『Aṣṭāṅga-hṛdaya-saṃhita(八心集, 아슈탕가호리 다야상히따)』(內外科를 종합하여 개괄)과 함께 'Āyurveda(아유르베다)'의 3대 醫經으로 칭해지며³⁾,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인도

'Āyurveda(아유르베다)'⁴⁾ 정규 교육과정에서 채용하고 있는 주요 경전이다.

『Suśruta-saṃhita(妙聞集, 수슈르타상히따)』은 卷一 總說은 46章、卷二 病因論은 16章、卷三 身體論은 10章、卷四 治療論은 40章、卷五 毒物論은 8章、卷六 補遺는 66章으로 총 186章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자가 Suśruta이기 때문에 이 책을 『Suśruta-saṃhita(슈스루타本集)』이라 칭하기도 한다. 『Suśruta-saṃhita』가 만들어진 연대는 확정할 수 없고 책이 만들어진 연대가 기원전 몇 세기까지 소급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오늘날의 일반적인 경향은 전세본의 형성이 기원후 3~4세기로 보고 있다⁵⁾.

한의학과 비교하면 경전의 형성과 유전 방면에 있어서 'Āyurveda(아유르베다)'의 세 경전과 현존본 『黃帝內經』은 역사적인 지위는 물론 유전과 분습, 내용형식 및 중요성 등 여러 방면에 걸쳐 매우 유사하다.

『黃帝內經』은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이지만 이 책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정론이 없다. 빠르게 이른바 '三墳舊典'으로 기원전 몇 세기로 보았고, 성서된 연대가 기원후 몇 세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중요한 문제는 『黃帝內經』이라는 서명이 劉向、劉歆 부자가 西漢 말년에 편성한 서목인 『七略

1) 矢野道雄. インド醫學概論. 東京. 朝日出版社, 1988年. pp.10-13.

2) 金基郁, 朴炫局, 徐志泳. 아유르베다(Āyurveda)의 醫經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7. 20(4). p.9
3. "인도 전통의학에는 'Āyurveda(아유르베다)', 'Homeopathy(順勢요법)', '생명화학요법', 'Allopathy(異物요법)', 'Unani(유나니)'의학, 'Naturopathy(자연의학)' 등 6종류의 체계가 유전되었고, 오늘날 인도의학은 '아유르베다', 'Unani(유나니)', 'Siddha(싯다)', 'Yoga(요가)', 'Naturopathy(자연요법)'의 5종류로 구분된다."

3) 金基郁, 朴炫局, 徐志泳. 아유르베다(Āyurveda)의 醫經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7. 20(4). p.105. "『Sūtrasthāna』의 체계를 살펴보면, 와라나시에서 간행된 2권본 『闍羅迦集』 권말에 아래와 같은 표가 있어 3대 고전의 卷數、章數、節數를 비교하였다. [] 안은 'Sūtrasthāna'에 차지하고 있는 숫자이다. 즉 『闍羅迦集』은 8卷、120章、9295節 [30章、1952節]이며, 『妙聞集』은 6卷、186章、8300節 [40章、2094節]이며, 『八心集(八科精華)』은 6卷、120章、7446節 [30章、1607節] 으로 구성되어 있다. 'Sūtrasthāna'는 각 책 모두 전체의 1/4을 점하고 있다(節이 가장 많은 것은 3 책에서 '치료의 권'이고, 그 중에 『闍羅迦集』은 4904절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3 책의 'Sūtrasthāna'에서 『八心集(八科精華)』이 가장 체계적이다."

4) 廖育群. 阿輪吠陀-印度的傳統醫學. 沈陽. 遼寧教育出版社. 2002. p.19. "인도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Āyurveda(아유르베다)'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현상을 지배하는 법칙과 원리를 밝히고 있다. '아유르베다'는 산스크리트어인 'Āyur' - 'veda'의 음역(音譯)으로 'Āyus(생명)'과 'Veda(지식)'가 조합된 '생명의 학'을 뜻하며, 양생보건과 질병의 인식과 이에 따른 해결 방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유르베다'는 건강을 유지함과 더불어 인생의 4대 기본 목표인 'dharma(法)', 'artha(利)', 'kāma(愛)', 'mokaṣa(解脫)'를 달성하는 것이며 아울러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Veda(지식)는 각 민족이 신을 찬양하거나 종교적인 詩歌의 내용을 담고 있는 'Veda(베다)'는 고대 산스크리트어(梵語)로 창작되었고, 대략 일반적으로 B. C. 1500~B. C. 1200에 『Rgveda(리그베다)』, 『Yajurveda(야주르베다)』, 『Samaveda(사마베다)』와 『Atharvaveda(아타르바베다)』가 저작되었다.

5) 金基郁, 朴炫局, 徐志泳. 아유르베다(Āyurveda)의 醫經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7. 20(4). p.16.

』에 수록되었지만 세상에 유전된 것이 반드시 『七略』과 班固의 『漢書·藝文志』에 기록된 “黃帝內經十八卷”이 아니라는 것이다. 각기 ‘9卷, 81篇’인 완벽한 숫자로 구성된 『素問』과 『靈樞』가 언제 만들어졌고 본래 독립적인 것이 어떻게 『黃帝內經』으로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단지 晋代 皇甫謐의 추측에 불과하다.

현존본 『黃帝內經』의 개황을 이해하면 『素問』과 『靈樞』는 여러 의가들이 편찬한 논문과 유과에 따른 관점을 대성시킨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들 모두 『Caraka-saṃhitā』와 『Suśruta-saṃhitā』의 성서연대 및 집결시킨 정황 등과 비슷한 점이 있다.

이 밖에 메스를 포함한 ‘九針’을 중국고대의 ‘외과기구’로 본다면 내용 방면에 있어서 『素問』은 의학이론에 편중되어 있고 『靈樞』는 침요법에 치우친 특징이 있는 것이 『Caraka-saṃhitā』는 내과를 중시하고 『Suśruta-saṃhitā』는 외과를 중시한 특징과 비슷하다. 그 후 8세기를 전후하여 『Caraka-saṃhitā』와 『Suśruta-saṃhitā』를 합쳐서 『Astanga-hrdaya-saṃhitā』를 만들었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素問』과 『靈樞』를 귀납시켜 만든 『黃帝內經太素』가 출현하였다. 그러나 『素問』과 『靈樞』의 경전적인 지위는 『太素』의 출현으로 약화되지 않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후학들의 필독서가 되고 있다.

‘Āyurveda(아유르베다)’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또한 의학체계에 따른 비교와 교류 방면에 대한 연구, 혹은 의학과 사회·철학 등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고찰하려면, 종설적으로 연구한 논문이나 저작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한 감이 들었다. 경전의 원래 모습을 이해하였을 때에 비로소 내용의 본질을 체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Suśruta-saṃhitā』의 번역을 시도하였다.

『Suśruta-saṃhitā』는 산스크리트어로 씌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힘들었는데, 1943년에 일본 다이찌하라 세이겐(大地原誠玄)이 완역한 『スシュルタ本集』⁶⁾에서 제1권인 「總說」부분을 번역하였고,

6)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東京. スシュルタ本集.

廖育群은 『阿輪吠陀-印度的傳統醫學』⁷⁾에서 「妙聞集·總說篇」을 중국어로 번역하였기에 이를 바탕으로 번역하였다.

오늘날 서양의학 체계가 보편성을 획득함으로써 기타 문화권의 전통의학은 소멸되고 있지만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한의학과 인도전통의학인 ‘Āyurveda(아유르베다)’이다. 따라서 논자는 ‘Āyurveda(아유르베다)’ 의학의 경전인 『Suśruta-saṃhitā(妙聞集, 수슈르타상히타)』의 「總說」 가운데 第1章-第15章을 번역함으로써, 한의학과 동양 전통의학의 지평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자료 및 연구방법

1. 日本 大地原誠玄이 1943년 완역한 『スシュルタ本集』(ア-ユルヴェ-ダ研究會 발행. 東條プリント工業株式會社에서 1971년에 프린트판 인쇄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2. 日本 大地原誠玄이 譯하고 矢野道雄이 校訂하여 1993년 東京의 たにぐち書店에서 출판한 『スシュルタ本集』을 校本으로 삼았다.

3. 中國 廖育群이 『阿輪吠陀-印度的傳統醫學』의 「妙聞集·總說篇」(遼寧教育出版社, 2002年)을 중국어로 번역한 것을 對校本으로 정하였다.

4. 『Suśruta-saṃhitā』는 46장으로 되어 있고 각기 標題가 붙어 있다. 廖育群은 標題와 함께 간단한 提要를 붙여 독자가 일별하는데 편의를 제공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廖育群의 편찬 방법에 따랐다.

5. 산스크리트어의 표기에 대해 일본판에서는 히라가나[平假名]로 음역하였고, 중국판에서는 중국어로 意譯 또는 음역하였는데(예를 들어 인도어 『Suśruta-saṃhitā』를 일본어판에서는 『スシュルタ本集』, 중국어는 『妙聞集』으로 번역함), 본 논문에서는 해석상 中·日의 漢字 표기가 같은 것은 그대로 따르고 고유명사는 산스크리트어 영문표기법에 따랐다.

たにぐち書店. 1993.

7) 廖育群: 『阿輪吠陀-印度的傳統醫學』, 沈陽, 遼寧教育出版社, 2002年.

6. 『Suśruta-saṃhitā』의 의학내용 가운데 한의 학과의 내재적인 연계성에 관해서는 脚注를 달아 설명하거나 고찰하였다.

7. 약물의 표기는 학명을 붙이고 일본어 명명법과 중국어 명명법을 병기하기도 하였다.

III. 本論

1. 베다의 기원

『Suśruta-saṃhitā』 제1권, 제1장의 명칭은 「Vedotpattyadhyāya(베다의 기원)」이다. ‘Āyurveda(아유르베다)’의 개황과 ‘人·病·藥·醫’를 총괄적으로 강술하였다.全书의 ‘序論’이라 말할 수 있다.

암자에서 지성 불멸인 ‘kaśi’국왕인 ‘Divodāsa Dhanvantari’ 주위에 둘러앉은 ‘Aupadhenava’·‘Vāitarāṇa’·‘Aurabhra’·‘Pāuṣkalāvata’·‘Karavīrya’·‘Gopura’·‘Rakṣita’·‘Suśruta’ 등이 그에게 말하길

“성자여 세상에는 육체적 혹은 정신적, 우발적 혹은 자연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통과 상해를 입어 우리들은 고립무원하고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비통한 감을 금할 수가 없나이다. 행복을 추구하려는 이러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함은 하나는 자신의 생계를 위함이고, 하나는 또한 인류를 위함이다. 지금 ‘Āyurveda(아유르베다)’에 입하여 스승의 가르침을 들길 원합니다. 현세와 미래의 복지는 ‘Āyurveda(아유르베다)’에 달려 있나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제자가 되고자 하니 성자의 허락을 바라옵니다.”⁸⁾

성자인 Dhanvantari가 그들에게 대답하길

“여기에서 말하는 ‘Āyurveda(아유르베다)’는 실은 Atharva-veda의 ‘upāṅga(가지)’로 인류가 창조되기 전에 ‘브라마(梵天)’가 100章, 10萬偈頌을 만들었다⁹⁾. 그러나 사람의 수명이 짧아지고 이해력이

모자람을 보고 다시 축소시켜 다음과 같은 8科로 만들었다. (1) Śalya-tantra(일반외과학), (2) Śalākya-tantra(特殊外科學), (3) Kāya-cikitsā(體療法), (4) Bhūta-vidya(鬼神學), (5) Kāumāra-chritya(小兒科學), (6) Agada-tantra(毒物學), (7) Rasāyana-tantra(不老長生學), (8) Vajikaraṇa-tantra(強精學)이다. 지금 이 8과의 특징을 약술하기로 한다.

일반 외과학은 草·木片·石·沙塵·鐵·土·骨·毛·爪·膿汁·分泌物·胎兒 등 여러 가지 이물을 제거하는 법으로 ‘yantra(얀트라)’와 ‘śāstra(샤스트라)’라는 의료기계의 용법·腐蝕法·燒灼法 및 腫瘍 진단법을 언급하였다. 특수외과학은 鎖骨 위쪽 병으로 즉 耳·眼·口·鼻 등에 관한 제병을 치료하는 법을 강술하였다. 體療法은 전신에 관계되는 병으로 즉 熱病·下痢·大出血·肺癆·癩癩·癩癩·癩病·泌尿病 등의 치료방법을 언급하였다. 鬼神學은 ‘Deva(天)’·‘Āsura(時修羅)’·‘Gandharva(乾闥婆)’·‘Yakṣa(夜叉)’·‘Rakṣas(羅刹)’·‘Pitri(卑帝利)’·‘Piśaca(畢舍遮)’·‘Nāga(龍)’·‘Graha(羯羅訶)’ 등이 일으키는 귀신과 정신적인 병을 몰리치기 위해 기도나 주문 혹은 공물로 악령을 위무하여 떨쳐내는 방법을 언급하였다. 소아과학은 육아법, 모유 소독법 및 惡質의 乳汁 혹은 Graha로 일으키는 제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강술하였다. 毒物學은 蛇·昆蟲·蜘蛛·蠍·鼠 등에 물리거나 쏘일 경우 나타나는 중독 증상과 여러 독물 혹은 음식물을 섞어 먹어서 일으키는 중독 증상을 증화시키는 해독방법을 강술하였다. 不老長生學은 젊음을 되살려 장수를 강구하고 健腦·強壯시켜 질병을 몰리치는 법이다. 強精學은 정액의 양이 적으면 풍만하게 하고 惡質은 純淨하게 하고 시든 것은 증식시키고, 미력한

H. Sir Bhagwat Sint Jee가 저작한 A Short History of Aryan Medical-Science에서 “He composed the Āyur-Veda, consisting of one hundred sections(adhyayas) of one hundred stanzas(shlokas) each.”(New Asian Publishers, Nai Sarak. 1978, p. 24). 오늘날 사람들은 이것이 전설임을 알지 못하고 Āyur-Veda가 書名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아유르베다』의 全書는 100章이고 매 章마다 100節로 되어 있다. 그 중에 의학을 8과로 나누었다. 운운’이라 하였다.”

8)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ユルタ本集 「第1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2.

9) 馬伯英. 中外醫學文化交流史. 上海. 文匯出版社. 1993年. p.117. “이 말은 醫學史家들에 의해 ‘Āyurveda(아유르베다)’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인용되었다. 예를 들어 H.

것은 육성시킴으로써 성욕을 왕성하게 하는 법이다. ‘Āyurveda(아유르베다)’의 8과는 상술한 바와 같다.”¹⁰⁾

스승께서 “지금 이 8과 가운데 어느 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줄까?”라고 묻자 그들이 대답하길 “성자이시여! 일반 외과학이 우리들의 의학 기초이니 가르쳐 주십시오.”¹¹⁾

스승이 이르길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그들은 다시 성자에게 말하길 “우리들 사이에는 어떤 의견의 차이가 없으니 ‘Suśruta’가 성자의 물음을 받들어 그에게 가르쳐 줄 때에 우리들도 삼가 경청하겠습니다.”

스승은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다. “나의 아이 ‘Suśruta’여! 실은 ‘Āyurveda(아유르베다)’의 목적은 병에 걸린 환자의 병을 치료하고 건강한 자는 그 건강을 지키게 하는 데에 있다. ‘āyus’는 생명·건강·수명의 뜻이고, ‘veda의 語根인 ‘vid’는 ‘앎’ 또한 ‘得’의 뜻이다. ‘Āyurveda(아유르베다)’는 생명의 학문 혹은 이것으로 건강과 장수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명하였다. 나는 ‘āgama(聖敎量)’·‘pratyakṣa(現量)’·‘anumāna(比量)’·‘upamāna(比喩量)’¹²⁾에 준거하여 ‘Āyurveda(아유르베다)’ 가운데 너희에게 최초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니 명심하여 들어라.”¹³⁾

10)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ュルタ本集「第1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p.2-3.

11)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ュルタ本集「第1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3.

12) 吉熙星. 印度哲學史. 民音社. 1984. p.116, p.119. “Nyāya(正理)學派의 철학체계는 대략 1~2세기경 Gautama 혹은 Akṣapada라는 사람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한다. 현재 Nyāya-sūtra(『正理經』)은 2세기경에 편찬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正理철학에서 聖敎量은 正敎量·至敎量이라고도 하고 성인이 말씀하여 헤아린 邪正이고, 現量은 眼識으로 나타나는 색깔을 보고, 耳識으로 소리를 듣는 것과, 比量은 연기를 보고 불이 난 것을 알듯이 자신의 지식으로 미지의 법을 밝히는 것이고, 比喩量은 비유법으로 인생이 무상함이 물거품이 무상한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얻은 지식은 대상에 관한 확실하고 충실한 오류가 없는 지식이며, 의심(samśaya), 오류(viparyaya), 가설적 論破(tarka) 혹은 기억(smṛti)에 의하여 얻은 타당하지 못한 지식(aprama)과 구별해야 한다고 하였다.”

13)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ュルタ本集「第1章」.

일반 외과학이 8과 가운데 가장 앞에 자리한 것은 이전에 (신들이 전쟁으로) 創傷·腫瘍을 치료한 신화와 ‘Yajña(제사의 신)’의 절단된 머리를 잇는 전설에서 기원하였다. 즉 Rudra신¹⁴⁾이 Yajña의 머리를 베었을 때에 여러 신들이 Asvin이라는 두 신의 곁으로 와서 “두 신이시여! 두 분은 우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용자이시니 두 분이 Yajña의 머리를 능히 이을 수 있을 것이다.” 두 신이 “그건 그렇다”고 하였다. 여러 신들이 두 신에게 공물을 바치고 ‘(루드라의 폭행에 격분한)Indra神’을 위무하였다. 그렇게 하여 Yajña의 머리는 두 신에 의해 이어지게 되었다.

이 일반 외과학이 ‘Āyurveda(아유르베다)’ 8과 가운데 우월하다고 보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즉 첫째, 외과적인 처치에 신속함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둘째, ‘yantra(鈍器)’·‘śāstra(銳器)’·부식법 및 소작법을 운용하는 기술을 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다른科와 상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科는 常住¹⁵⁾、吉祥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영광을 부여하여 장수를 누리게 하고 생계를 지원한다. 梵天의 시작에서 이를 말하여 Prajāpati¹⁶⁾가 따라서 이를 배우고 ‘두 신(雙子之神)’은 Prajāpati에게, 인드라는 ‘두 신(雙子之神)’에게 이를 배웠다. 나는 지금 인류를 위해 이를 배우고자하는 사람에게 전수한다.

이에 偈頌하길:

“나 Dhanvantari는 실로 梵天으로써 諸神의 老病死를 없애고 일반외과학과 기타 醫方을 숙달시켰지만 지금 다시 이를 下界에 가르치기 위해 이 세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3.

14) 吉熙星. 印度哲學史. 民音社. 1984. p.40. “초기 우파니샤드(Upaniṣad)에는 브라만이 대체로 비인격적인 형이상학적 實在로 이해되었지만, 中後期에는 온 세계를 지배하는 인격신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그를 베다의 신 가운데 하나인 Rudra로 불렀고, 이 신은 나중에 쉬바(siva)신과 동일시되었다.”

15) 생멸과 변천이 없는 법을 ‘常住’라 한다.

16) 吉熙星. 印度哲學史. 民音社. 1984. p.24. “Veda에 있어서 세계가 여러 힘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는 多神論의 사고 방식 이외에 이미 세계의 여러 현상 내지 힘들의 배후에 있는 어떤 통일적인 존재의 원리에 대한 의식도 있었다. 이 통일적 원리는 Prajāpati 등 세계의 창조신으로 이해되었다.”

상에 현신하였다.”¹⁷⁾

이 ‘Āyurveda(아유르베다)’에는 5대로 이루어진 몸이 있고 영혼과 결합된 것을 puruṣa¹⁸⁾라 한다. 사람이 치료법을 이해하고 사람이 靈長한 까닭은 무엇인가? 이르길 세계에는 두 가지의 구분이 있다. 두 가지란 動하지 않는 즉 식물과 動하는 즉 동물이 이러한 것이다. 또한 溫乾性한 것과 冷濕性한 것 두 가지로 구별하고, 혹은 5대 원소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세한지에 따라 地·水·火·風·空性 5가지로 구별한다. 동물 가운데 濕生·卵生·萌生·胎生 4가지가 있다. 사람은 그 으뜸으로 기타의 것은 사역을 받는다. 따라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나 고통을 주는 것을 병이라 한다. 병 가운데에는 우발적·신체적·정신적·자연적인 4가지가 있다. 그 중에 우발적인 것은 외상으로 일으키는 병이고, 신체적인 것은 음식물에 의해 일으키거나 혹은 체내의 ‘vata(體風素)’, ‘pitta(膽汁素)’, ‘kapha(粘液素)’ 및 혈액의 一、二、三 혹은 전반적인 이상 변화로 균형을 잃어 생기는 질병이다. 정신적인 것은 怒·憂·恐·狂·喜·낙담·질투·비탄·인색·욕욕·탐욕 등 애증에 위배되어 정신적인 혼란으로 일으키는 질병이다. 자연적인 것은 배고픔·갈증·老死·수면과 같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병은 心과 身에 의탁한 것이다. 이러한 질병을 치료하는 ‘因’으로는 淨化法·진정법·식이요법 및 섭생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에 있다.

음식물은 생물의 체력·容色·활력의 본원으로 여기에 있는 ‘味’는 6가지로 나뉘지만 이러한 味는 음식물에만 한정되지 않고 어떠한 물질에도 존재한다. 약물에도 식물성과 동물성 2가지 있다.

식물성에는 꽃이 없고 열매가 있는 ‘vanaspati

(喬木)’, 꽃과 열매가 있는 ‘vrikṣa(喬木)’, 灌木과 ‘virudha(蔓生식물)’, 열매가 성숙하면 시드는 ‘oṣadhi(草本)’ 등 4종으로 나누었다.

동물성에도 胎生·卵生·濕生·萌生 4종으로 나누었다. 그 중에 가축·인류·野獸 등은 胎生이고, 鳥類 및 蛇와 기타 爬蟲류 등은 卵生이고, 蠕蟲·곤충·蟻 등은 濕生이고, 螢·蛙 등은 萌生이다.

식물에서 얻는 皮·葉·花·果實·根·球莖·乳·脂·精·油 등과 동물에서 얻는 皮·爪·毛·血 등이 약용으로 제공된다. 地界에 속하는 즉 광물에는 金·銀·寶石·珍珠·雞冠石·土·土器·瓦 등이 있다.

‘kāla(時)’에서 생기는 것, 예를 들어 風의 有無·晴·曇·달의 밝고 어둠·寒·暑·雨·晝·夜·半月·月·季·半年 등은 時의 변화에 따른 특이성이다. 이러한 ‘時’는 혹은 자신의 ‘Doṣa(病素)’를 축적시키거나 치유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時에 관한 지식은) 의료에 있어서 유용하다.

이에 偈頌하길 :

“상술한 4종(음식물·有機性약물·無機性약물·時)’은 신체의 병증을 가중시키거나 낮게 하는 因으로 많은 의사들이 언급하였다. 偶發症에는 2가지가 있어 정신적 혹은 신체적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치료법도 2가지가 있다. 신체적인 偶發症에 대해서는 신체적인 질병과 같은 요법을 쓰고, 정신적으로 생기는 경우 그 요법은 환자에게 쾌감을 줄 수 있는 ‘聲(色·香·味·觸)’ 등에 의한다.”¹⁹⁾

이상으로 人·病·藥·醫療와 時 4가지를 대략 언급하였다. 人은 5元素가 결합되어 이루어지고 이는 ‘肢體(頭·胴·四肢)와 ‘體部(額·鼻·頤·指·耳 등)’, 皮·肉·脈·髓·靭帶·神經 등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病은 體風素·膽汁素·粘液素·血液 어느 하나 혹은 두셋 혹은 모두 부조하여 일으키는 병적인 현상이다. 그 다음은 藥으로 약물의 성질·미·효능 및 소화를 논하였다. 醫療는 절제·절개 등 외과적인 수술 및 油脂藥塗擦法을 논하였고 또한 時는 치료하는 時季를 논한

19)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스シュルタ本集「第1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p.5-6.

17)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스シュルタ本集「第1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4.

18) 吉熙星. 印度哲學史. 民音社. 1984. p.27, p.81. “『리그베다』(RgVeda)에는 신들이 한 宇宙의 인간(puruṣa)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온 세계가 생겨났다고 한다. 즉 그의 눈에서 해, 마음에서 달, 입에서 인드라와 아그니신, 숨에서 바람의 신 바유, 배꼽에서 空中圈, 머리에서 하늘, 발에서 땅, 귀에서 四方이 생겼다고 한다. 이후 영원한 정신으로서의 참자아(puruṣa)와 물질적, 현상적 자아(prakṛti)로 구별하였다.”

것이다.

이에 偈頌하길 :

“의료의 종자(건강한 과실을 맺는)를 이와 같이 약술하였다. 이하 120장에서 상세히 설명한다.”²⁰⁾

120장의 제목에 따라 (1) 「sūtra-sthāna(總說篇)」, (2) 「nidāna-sthāna(病理篇)」, (3) 「śārīra-sthāna(身體篇)」, (4) 「cikitsita-sthāna(治療篇)」, (5) 「kalpa-sthāna(毒物篇)」으로 다섯 부분으로 나누고 「uttana-tantra(總結篇)」 앞에 빠진 문제를 기술하였다.

이에 偈頌하길 :

“사람이 梵天에 의해 창설되고 ‘Kāśī(카시)’ 국왕에 의해 선양된 영원불변한 ‘Āyurveda(아유르베다)’를 배운다면, 그 사람은 덕성이 있고 이 세상에서 제왕의 존경을 받을 것이며 사후에는 인드라가 살고 있는 것과 같은 천국에 태어날 것이다.”²¹⁾

2. 학생입문

『Suśruta-samhitā』 제1권, 제2장은 「Śiṣyopanayanīyadhya(學生入門章)」이라 하여 의학을 배우는 자가 구비해야 하는 조건과 스승을 모시고 의학을 배우는 규범을 강술하였다.

‘바라문’·‘kṣatriya(크샤트리아)’·‘vaiśya(바이샤)’²²⁾의 집안에서 태어난 청년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용기가 있고 순결하고 거동이 바르고 紀律을 잘 지킨다. 기능·체력·지력·의지력·기억력·이해력·오성을 갖추고 있고, 舌·唇·치아가 단정하면서 맑고, 口·眼·코가 또렷하고, 마음·말·동작이 온화하다. 또한 고통을 인내할 수 있어야 하며 의사는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을 문하에 들여야 한다. 이와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자는 들여서는 안 된다.

브라만의 청년이 입문할 때에는 길일과 좋은 시

간을 선택하여, 길상한 방위와 깨끗하고 평탄한 곳에 대략 사방 6자가 되는 제단을 만들어 소똥을 바르고 띠풀 다발을 깔아 각종 꽃과 밥과 기타 각종 음식물과 각종 보옥을 공양하고, 제신·파라문 승려·의사에게 예를 올린다. 제단 주위에 선을 긋고 물을 뿌리고 입문하려는 사람은 파라문의 오른쪽에 서서 ‘khadīa(Acacia Catechu. 阿仙藥)’·‘paraśa(Butea frondosa. 葦科식물)’·‘devadāru(Pinus Deodara. 히말라야 소나무)’·‘vilva(Aegle Marmelos. 藝香科)’ 나무 혹은 ‘nyagrodha(Ficus bengalensis. 바니안나무)’·‘udumbara(Ficus glomerata. 우담바라화)’·‘aśvatta(Ficus religiosa. 보리수)’·‘madhūka(Bassia latifolia. 赤鐵科)’ 등과 같이 유즙이 풍부한 목재에 酪·蜜·酥를 발라 연료로 삼고, 여기에 불을 붙이고 ‘darvihoma(柄杓燒供)’의 법식에 따라 작은 표주박에 酥를 제사를 지내는 불에 부어 신에게 제사를 올린다.

먼저 (地·空·天 三界의 모든 신에 대해) ‘Om bhūh svāhā, Om bhavaḥ svāhā, Om svaḥ svāhā’라 염송한 다음에 각 신과 각 신선에 대해 svāh ā²³⁾라 외치고 제자들도 함께 따라 한다. 브라만은 바라문·크샤트리아·바이샤의 자제를, 크샤트리아는 크샤트리아·바이샤를, 바이샤는 바이샤의 자제만을 입문시킬 수 있다. 혹자는 이르길 ‘śūdra(수드라)’일지라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질이 우수한 자제라면 주문을 외우고 의식을 행하면 입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3차례 불 주위로 제자를 이끌고 불을 중심으로 삼아 다음과 같이 혼시한다. 애욕·분노·탐욕·어리석음·교만·자만·질투·거친 말·비방·허언·나태·기타 치욕스런 행위를 버리고 반드시 손톱과 모발을 짧게 깎고, 몸을 깨끗이 하여 暗赤色の 의복을 입고, 진지하게 맹세하고 ‘梵行(음욕을 끊음)’하고 예의를 차려 공경스런 말로 순순히 따르는 자가 되어라. 行·住·坐·臥·食·학습 등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들어서 따르고 나를 즐겁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처럼 걱정하여라.

네가 이러한 의무를 완성시키지 못하면 너의 생

23) 기도를 마칠 때의 용어로 축복과 행운을 뜻한다.

20)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ュルタ本集 「第1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p.5-6.

21)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ュルタ本集 「第1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6.

22) 이 3자는 모두 아리안 인종(백인종의 정복자)에 속한다. 최고의 등급은 브라만(승려)이고 그 다음은 크샤트리아(귀족 혹은 무사)이고 세 번째는 바이샤(평민 혹은 상인)이며 마지막으로 수드라(기술자와 노동자)이다.

활은 올바르지 못하고 학문은 무익하며 명예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네가 의무를 다하여도 내가 의무를 태만하게 하는 바가 있으면, 내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니 나의 학문이 무익하다고 할 수 있다. 브라만·師長·빈궁한 자·친구·출가인·식객·착한 사람·홀아비·과부·고아·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자신의 친척과 같이 여겨서 약을 주어 치료를 해주어라. 이와 같이 하면 덕이 있는 선비가 될 것이다. 수렴하는 사람·백정·사람 같지 않은 죄인에 대해서는 치료해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학문이 일세에 떨칠 것이고 친구·명예·德·富·사랑을 얻을 것이다.²⁴⁾

이에 偈頌하길 :

“黑分²⁵⁾의 여드레와 마지막 날, 마찬가지로 白分の 여드레와 마지막 날, 또한 하루에서 아침과 저녁, 또한 번개와 우뢰가 발생할 때, 또한 자신이 소속된 학과·국가·군주에게 환란이 있을 때, 또한 묘지에 있을 때, 말을 타고 있을 때, 전쟁·큰 제사·괴이한 일이 있을 때에는 공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 또한 브라만이 공부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몸이 더러워졌을 때에는 절대로 학습해서는 안 된다.”²⁶⁾

3. 학습 전수

『Suśruta-saṃhitā』 제1권, 제3장에는 「Adhyayanasaṃpradānīyādhyāya(學習傳授章)」이라

24) 吉熙星, 印度哲學史. 서울. 民音社. 1984. p.86. “기원전 약 200년경부터 기원후 300년경 사이에 고대 인도인의 생활규범을 체계적으로 제정한 법전(Dharma śastra)들이 편찬되었고, 이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것은 마누(Mānava)법전 등이다. 마우리아(Maurya)왕조 이후 인종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점점 복잡해져가는 사회적 상황에 바라문들이 대응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카스트제도와 인생의 4단계에서 개인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삶의 형태를 제시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의사들이 지켜야 할 여러 규범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25) 印度의 역법에서 달이 차고 기운을 주로 黑白으로 명명하였다. 달이 차서 보름에 이르기까지가 白分(白月이라고도 함)이라 하고, 달이 이지러져 그믐에 이르기까지가 黑分(黑月이라고도 함)이다. 백분 이전과 흑분 이후를 합하여 1달이 된다.

26)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ュルタ本集「第2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8.

하였다. 경론을 습득하는 방법을 강술한 것 이외에 주로 학습에 반드시 중시해야 하는 책과 실천 두 방면을 강조하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120장을 5편으로 나누고, 각 편에 소속된 장을 들면 다음과 같다. 제1, 總說篇 46; 제2, 病理篇 16; 제3, 身體篇 10; 제4, 治療篇, 40; 제5, 毒物篇 8, 이밖에 補遺篇 66장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補遺篇을 여러 大仙이 ‘uttaratantra’²⁷⁾라 명명한 까닭은 우수하고 많은 의의를 내포하고 있고 혹은 그 우수함이 (이 책에서)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特殊外科學、小兒科學、體療法、鬼神學은 ‘補遺篇’이라 명명되어 있다. 強精學과 不老長生學은 본 논문의 治療篇에, 毒物學은 毒物篇에 있고, 또한 一般外科學은 본문 가운데 산재되어 논술하기로 한다.

상술한 8분과에 의해 조성된 ‘Āyurveda(아유르베다)’는 ‘브라마(梵天)’의 계시로, 사람이 법규에 따라 배우고 실제로 수업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는 자가 된다. 따라서 ‘Āyurveda(아유르베다)’를 배워야 하고 또한 배운 후에는 반드시 실습해야 한다. 양자를 함께 익힌 의사는 왕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偈頌이 있어 :

“단지 이론만 배우고 실제에 어두운 사람은 환자를 접해도 기량을 잃게 되어 마치 겁쟁이가 전장에 임하는 것과 같다. 이와 반대로 실제에 숙련되어 대담할지라도 學理에 소홀한 사람은 착한 사람의 존경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왕에 의해 마땅히 사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 두 종류의 실력 없는 의사는 자신의 직책을 다할 수 없어 흡사 반쪽 베다만 가진 브라만과 같고 한쪽 날개만 가진 새와 같다. 甘露와 같은 영약일지라도 무지한 의사에 의해 사용될 때에는 날카로운 무기·번개·독물과 같은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사를 배척해야 한다. 절제 등의 기술과 油藥 등의 용법을 모르는 나쁜 의사는 그 탐욕으로 살인을 하니 (해를 끼치는

27) (각종 저작의) 마지막 1장을 뜻한다. 舊譯에는 “無上本續”으로 되어 있다.

자의 생존을 허락하는 것은) 왕의 과실이다. 두 바퀴를 가진 전차가 전쟁에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론과 실제에 통달한 현명한 의사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²⁸⁾

나의 아이들아! 이 학문을 배우는 방법에 임하여 나의 말을 잘 들어라. 배울 때에는 몸을 깨끗이 하고, 상의를 입고, 마음을 가다듬어 스승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스승은 제자의 능력에 의거하여 語 혹은 句 혹은 節을 가르친다. 이러한 語·句·節 등을 반드시 베다의 讀誦法에 따라 몇 차례 반복하여 열심히 연습시킨다. 이른바 독송법은 첫 번째 사람이 먼저 읽은 다음에 두 번째 사람과 합송하고 그런 연후에 두 번째 사람이 혼자 다시 외운다. 이러한 순서로 마찬가지로 과정을 반복한다.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주저함이 없고, 콧소리를 내지 말고, 발음이 명료하고, 음색에 압박의 감이 없고, 눈·눈썹·입술·손 등이 흔들림이 없고, 정확한 梵語를 사용하고, 높지도 낮지도 않은 성조로 암송한다. 스승과 제자가 ‘Āyurveda(아유르베다)’를 이수할 때에는 어떤 사람도 그 사이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에 偈頌이 있어 :

“제자가 되는 자는 심신을 청정하게 유지하고 스승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기민하게 하며 태만과 졸음을 피하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Āyurveda(아유르베다)’를 배운 자는 의학의 깊은 뜻을 다할 수 있다. 이러한 (아유르베다의) 깊은 뜻에 이른 사람은 정확한 언어의 사용, 의식과 자신으로 가득 찬 태도, 치료기술의 숙련, 반복적인 연습 및 사업의 성취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²⁹⁾

4. 이해와 박학

『Suśruta-samhitā』 제1권, 제4장에서 「Prabhāṣanīyādhyāya(釋義)」라 하였다. 그 주지는 ‘이해’와 ‘博學’의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28)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ュルタ本集 「第3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9.

29)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ュルタ本集 「第3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10.

‘Āyurveda(아유르베다)’의 독송법을 배웠을지라도 그 의의를 모르면 단지 나귀가 향나무를 지고 나르는 것처럼 헛된 수고를 할 뿐이다.

이에 偈頌하길 :

“마치 나귀가 향나무를 지고 운반하여도 향나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전문서를 암송하여도 그 뜻을 모르는 자는 마찬가지로 나귀가 짐을 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³⁰⁾

따라서 (스승이 되는 자는) 반드시 120장의 하나 하나의 語·句·半節·節의 의의를 (제자에게) 몇 번이고 반복하여 들려주어야 한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미묘한 약물의 味·성질·효능 및 소화·‘doṣa(病素)’·‘dhātu(조직)’·‘mala(분비배설물)’·장기·근소·맥관·근(신경, 건, 인대 등)·관절·골·수태의 원리·약물의 채집법 및 그 성분 등·체내에 숨어있는 이물을 제거하는 방법·중양의 진단법·골절의 종류·병을 치료할 수 있음과 경감시키는 것과 치료할 수 없음을 판별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이외에 의학에 관한 특수한 문제는 수천을 헤아린다. 이러한 문제는 항상 연구의 대상으로 무구 청정한 大智라도 늘 곤혹스러워 한다. 하물며 小智에 있어서라?

따라서 하나하나의 語·句·半節·節을 차례차례 설명하여 학생들에게 반복하여 들려주어야 한다.

의학 이외의 책에 있는 제목에 대해 이 책의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인용할 경우 각기 전문가에게 그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부 전문서는 모든 기타 학설을 포섭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偈頌하길 :

“하나의 전문서만 학습하는 사람은 (자기의) 전문 학문에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는 널리 들어서 그 학문을 닦아야 한다. 스승이 입으로 전해 주는 학문을 삼가 듣고 체득하여 누누이 이를 실제에 응용한 후에라야 비로소 진정한 의사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도적이다. 일반 외과학에 관한 Aupadhenava·Aurabhra·슈루타 및 Pauskalavata가 기타의 저서의 기본이 된다.”³¹⁾

30)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ュルタ本集 「第4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10.

5. 의료 필수품

『Suśruta-saṃhitā』 제1권, 제5장은 「Agropaharaṇīyādhyāya(醫療必需品)」으로 명명하고, 의료과정을 3단계 즉 시술전 준비, 요법의 선택, 시술후 처치로 개괄하였다. 여기에서 3방면에 대해 모두 언급하였지만 전면적으로 논술하지 않아 기타 장절과 서로 참조해야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의료에는 시술전의 준비·주요한 의료법·시술후의 처치 3단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나는 그 병에 대해 하나하나 서술하기로 한다. 본문에서는 주로 외과수술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먼저 외과수술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필수품을 기술한다.

외과수술은 ‘chedya(切除)’·‘bhedyā(切開)’·‘lekhyā(亂刺)’·‘vedhya(穿刺)’·‘eṣya(探鍼)’·‘āhārya(異物拔除)’·‘visravya(刺絡)’·‘sīvyā(縫合)’ 8가지를 포함한다. 의사로서 이 8가지에서 어떤 것을 행하려면 먼저 다음과 같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 ‘yantra(鈍器)’·‘śāstra(銳器)’·‘kṣāra(腐蝕劑)’·‘anni(燒灼物)’·‘śalākā(棒 또는 探鍼)’·吸角·水蛭·葫蘆·‘jāmbavāuṣṭha(探鍼의 일종)’·棉·布·線·葉·붕대·蜜·酥·‘vasā(膏)’·乳·油·點眼劑·煎藥·塗擦劑·泥膏·등근 부채·冷水·뜨거운 물·‘kathā(냄비)’ 등과 친절하고 지조가 굳세고 신체가 건장한 여러 명의 조수를 준비한다.

길일의 좋은 시간을 선택하여 酥·麥·음식물·보옥을 火神, 브라만승, 의사 등에게 공경스럽게 공물을 받들어 祝禱를 행하고 브라만승에게 선물을 바친다. 환자에게 소화되기 쉬운 음식물을 제공하고 동쪽으로 향하여 손발을 묶고 의사는 서쪽으로 향한다. 活點·정맥·신경·관절·골·동맥을 피하여 정확한 방향으로 ‘śāstra(銳器)’를 삽입하고 농이 유출되면 즉시 śāstra를 뽑는다. 큰 膿瘍의 절개는 두 손가락 넓이 정도의 깊이로 달한다. 농양은 길고 폭이 넓고 평평하고 균형이 잡힌 것이 良性이다.

이에 偈頌이 있어 :

“**길면서 넓으며 균형이 잡혀있고 깊지 않으며 또**

31)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스シュル타本集 「第4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11.

한 충분히 성숙된 농양은 수술을 시행하기가 적합하다. 시술할 때에는 대담하고 기술이 민첩하고 기구는 예리하고 땀을 내어 몸이 떨리지 않게 하고, 또한 이와 같은 행동은 외과의로써 칭찬받는 태도이다.”³²⁾

농양을 국부적으로 절개함에 있어서 농을 제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곧장 기지를 발휘하여 이를 탐지하여 다시 다른 부위를 절개한다.

이에 偈頌이 있어 :

“**농양의 깊은 곳으로 통하는 瘻管이 있는 장소를 알면 그 곳을 절개하여 농이 남지 않도록 처치해야 한다.**”³³⁾

눈썹·뺨·관자놀이·이마·눈꺼풀·입술·齒槽·겨드랑이·배·서혜 부위에 있는 것을 斜方 절개라 한다. 의사는 수족에 있는 것은 보름달 모양으로 절개하고, 항문과 음경에 있는 것은 반달 모양으로 절개한다. 이를 위배하여 정맥과 신경을 잘못 절단하면 심한 통증이 생기고 상처가 낫는 시기가 지연되고 결절의 腫이 생긴다. 胎位不正·복부종창·치핵·방광결석·치루·구강병의 경우에는 환자를 금식시킨 후에 시술한다.

수술을 행한 후에는 냉수로 환자를 위로하고 환부 주위를 여러 방향에서 누르고 손가락으로 농양을 주무르고 달인 약으로 씻어준다. 수건을 물에 적서 닦고 胡麻의 고약·蜜·酥를 다량으로 도포하고 또한 淨化劑를 뿌린 것을 상처에 삽입한다. 이와 같이 고약을 발라 붙이고 그 위에 粗·滯에 알맞게 두꺼운 수건을 눌러서 덮고 붕대로 감는다. 진통과 마귀를 쫓는 향을 태워 마귀가 물러나게 하는 주문을 외워 수호한다.

이와 같이 ‘guggulu(Balsamodendrum Mukul, Hook. 安息香)’의 수지·‘aguru(Aquilaria Agallocha, 沈香)’ 나무·‘sarja(Shorea robusta, 사라雙樹)’의 수지·‘vaca(Acorus Calamus, 菖蒲)’의 뿌리·‘gaurasarṣapa(Sinapis alba, 白芥子)’의 분말·鹽·‘nimba(Melia Azadirachta, 楝樹)’의 잎

32)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스シュル타本集 「第5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12.

33)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스シュル타本集 「第5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12.

을 혼합하여 酥에 담가 이것으로 훈증한다. 남아있는 酥는 환자의 긴요한 생활 기관에 도포한다. 물병에 물을 길어 살포하고 다음과 같은 주문을 외운다.

“Kṛitya(吉遮)’와 ‘Rakṣas(羅刹)’의 악령을 막기 위해 나는 마귀를 물리치는 의식을 행하고 ‘브라마(梵天)’는 이를 허락하셨다. 브라마와 여러 신들은 ‘Nāga(龍)’·‘Piśaca·Gandharva·Pitri’·‘Yakṣa(夜叉)’·‘Rakṣas(羅刹)’ 등이 너를 공격하는 것을 늘 박멸하셨다. 밤에 지상과 허공을 돌아다니는 것과 집안 여러 곳에서 너의 공격을 받는 것들이 너를 수호할 것이다. 브라마에서 태어난 牟尼와 천계의 王仙을 비롯하여 산하, 대양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너를 수호한다. 火神은 너의 혀를 지키고, 風神은 ‘prāṇa(호흡작용)’을, ‘Soma(酒神 또는 月神)’는 운동과 ‘vyāna(순환작용)’을, 雨神은 ‘apāna(배설작용)’을 수호한다. 電神은 ‘udāna(발성작용)’을, 雷神은 ‘samāna(소화작용)’을, 인드라는 힘을, Manu³⁴⁾는 목의 힘줄과 지혜를 수호한다. Gandharva는 너의 사랑을, 인드라는 너의 용기를, Varuṇa왕은 너의 지혜를, 대양은 너의 배꼽을 지킨다. 태양은 너의 눈을, 방위의 신은 너의 귀를, 달은 너의 뜻을, 별은 너의 형체를, 밤은 너의 그림자를 지킨다. 물은 정역을 넘치게 하고, (藥)草는 모발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솟은 너의 孔竅를, 地는 너의 신체를 지킨다. 火神은 머리를, Viṣṇu신은 너의 용기를 지키고, 最勝人은 웅건한 기상을, 브라마는 너의 자아를, 極星은 너의 눈썹을 지킨다. 이러한 신령은 특히 너의 몸속에 늘 있어 항상 너를 수호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장수할 수 있게 된다. 브라마와 기타 諸天이 너를 축복하고, 일월과 Narāda·Parvata 두 신선이 너를 축복한다. 火神·風神·인드라를 따르는 여러 신과 브라마에 의해 창조된 수호신도 너를 축복하고, 너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항상 여러 질병을 낮게 하여 너에게 고통이 없게 하리라. 사바하.”³⁵⁾

이러한 ‘mantra(만트라)’³⁶⁾는 ‘Kṛitya(吉遮)’라

하는 악령이 일으키는 병을 퇴치하지만 지금 내가 노래를 불러서 너를 수호하고 장수를 누리게 하노라.

이와 같이 수호를 받은 환자는 병실로 들어가 양생법을 전수 받는다. 셋째 날에 붕대를 갈고 둘째 날에 급하게 붕대를 풀어서는 안 된다. 둘째 날이 붕대를 풀려고 할 때에는 상처가 낫는 시기가 지연되고 극렬한 통증이 생긴다. 이 이후에는 病素·계절·환자의 힘 등을 고려하여 煎藥·연고·붕대·음식물 및 섭생법을 가르친다. 조급하여 너무 급하게 하였을 때에는 내부의 병독이 낫지 않는다. 그 원인은 조그마한 결점이라도 내부에 깊은 창양을 생기게 하고 질병을 재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偈頌하길 :

“따라서 腫瘍은 내의를 같이 철저히 치유해야 한다. 상처가 나왔더라도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에 이르기 전에는 소화되기 힘든 음식·극렬한 운동·성교·狂喜·분노·공포를 피해야 한다. 의사는 冬季·冷季·春季에는 3일마다 한차례 붕대를 갈아주고, 秋季·夏季·雨季에는 격일로 갈아준다. 병이 급할 때에는 의사는 이러한 규칙에 구애되지 않고 마치 집안에 불이 난 것처럼 신속히 치료해야 한다.”³⁷⁾

수술을 행한 후에 그 부위가 아파서 환자가 고통으로 고생하면 미지근한 酥에 甘草를 가하여 환부에 바르면 통증이 진정된다.

6. 계절 양생

‘時’를 중시하는 것이 제1장 「아유르베다의 기원」에 이미 나타난다. 『Suśruta-samhitā』 제1권, 제6장에 「ṛtucaryādhyāya(季節養生)」이라 명명하였다. ‘한순간’에서 ‘5년 주기’에 이르는 사이 10개의 시간 단위를 상세히 소개하였고 중점을 둔 것은 1년 6계절에 순응하는 자연의 ‘養身之道’이다. 이는 중

34) Manu : 신화에서 인류의 시조이다. 세상은 하나의 겁(劫)이 끝날 때마다 인류는 모두 멸망한다. 새로운 겁이 시작되면 인류는 마누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35)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ュルタ本集「第5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13.

36) 意譯하면 ‘眞言’이다. 『베다』와 『奧義書』에서는 일반적으로 찬가·禱詞·咒文을 가리키는 것에 쓰인다. 후기 密敎에서 ‘眞言’이 크게 유행하여 이것을 명명한 ‘眞言敎’나 ‘眞言乘(mantra-yana)’이 나타났다. 그러나 함의가 달라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는 연사로 해석되었다.

37)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ュルタ本集「第5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14.

국 秦漢시기의 ‘陰陽家’와 ‘醫家’가 ‘四時의 차서’를 강구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인도의 역법은 1년을 6계절로 나눈 것이 중국과 다른 점이다. 이를 자세히 읽어보면 漢代 이후 중국 전통의학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이론인 運氣學說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kāla(時)’는 독립적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始·中·終이 끊이지 않으며 味가 변하는 것도 사람의 생사도 이것에 의존한다. ‘kāla’라는 말은 ‘kal’의 語根에서 유래하였고, 잠시도 정체가 아니라는 뜻이 있다. 또한 생물체를 集成하거나 혹은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kāla’라 칭한다.

太陽은 특수하고 고유한 운행을 통하여 1년을 기준으로 삼아 時를 나누는데, nimeṣa, kāṣṭhā, kalā, muhūrta, 일주야, 반달, 달, 계절, 年, yuga(5년)이다. 그 가운데서 nimeṣa는 짧은 모음을 발하는데 요하는 시간이고, kāṣṭhā는 nimeṣa의 15배이다. kalā는 30kāṣṭhā, muhūrta는 20kalā, 일주야는 30muhūrta, 15주야는 반달, 한달은 明暗의 두 반달을 말한다.

‘māgha(1월의 중간에서 2월의 중간에 이르기까지)’ 이하로 12개월이 있다. 두달이 하나의 계절이 되고, 1년에는 ‘śiśira(冷季)·‘vasanta(春季)·‘grīṣma(夏季)·‘varṣa(雨季)·‘śarad(秋季)·‘hemanta(冬季)’ 여섯 계절이 있다. 그 중에 冷季는 ‘tapas(=māgha)와 tapasya, 春季는 madhu와 mādghava, 夏季는 śuci와 śukra, 雨季는 nabhas와 nabhasya, 秋季는 iṣa와 ūrja, 冬季는 sahas와 sahasya라 한다.

이러한 여섯 계절은 寒·暑·雨로 분류하지만 적도에 대한 태양의 위치로 일월의 시간을 분류하면 남북 두 行期가 된다. 그 중에 ‘dakṣina-ayana(南行期)’는 雨季·秋季·冬季이다. 이러한 계절은 月의 세가 성하고 酸·鹹·甘味가 점차 유력해지며, 모든 생물의 힘이 세어진다. ‘uttara-ayana(北行期)’는 冷季·春季·夏季이다. 이러한 계절은 日이 우세하고 苦·澀·辛味가 점차 유력해지며 모든 생물의 힘이 약해진다.

이에 偈頌하길 :

“달은 대지를 적서주고 태양은 대지를 마르게 하며, 바람은 일월과 함께 생물을 지킨다.”³⁸⁾

南北 두 行期가 합해져 1년이 된다. 5년을 ‘yuga’라 한다. nimeṣa에서 yuga까지의 시간은 마치 바퀴가 돌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kāla-cakra(時輪)’이라 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여기에 病素가 쌓이고 격화되고 진정되는 관계로 인하여 雨季·秋季·冬季·春季·夏季·prāvṛṣ(前雨季) 여섯 계절로 나눈다. 이러한 계절은 bhādrapada에서 시작하여 2개월마다 하나의 계절이 된다. ‘bhādrapada(8~9월)’와 a‘śvayuja(9~10월)’는 雨季, ‘kārtika(10~11월)’와 ‘mārgaśīrṣa(11~12월)’는 秋季, ‘pauṣa(12~1월)’와 ‘māgha(1~2월)’는 冬季, ‘phālguna(2~3월)’와 ‘cāitra(3~4월)’는 春季, ‘vaiśakha(4~5월)’와 ‘jyāiṣṭha(5~6월)’는 夏季, ‘āṣāḍha(6~7월)’와 ‘śrāvana(7~8월)’는 雨季이다.

그 중에 雨季에는 ‘草(쌀·葦·菽과 같은 것)’가 여물지 못하고 그 힘이 약해지며, 물이 탁해져 흙과 오물을 많이 함유하고 이러한 것을 사람들이 상용할 때에 하늘에 구름이 덮히고 땅이 물에 적셔진 환경으로 몸은 습해진다. 냉기로 인하여 소화시키는 화가 저해된 사람은 음식물을 소화시키지 못하여 신물이 오르고 또한 膽汁素의 적취가 생긴다. 이러한 적취는 하늘에 구름이 적어지고 진흙이 마르고 햇빛이 약해지는 때에 이르게 되면 膽汁素性 질병을 일으킨다.

冬季에 이르면 穀菽類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성숙하고 강력해지며 물은 맑고 부드러워지고 매우 무거워진다. 이러한 것을 상용하는 사람들은 태양이 약해지고 찬 기운으로 신체가 응축되어 음식을 온전하게 소화시킬 수 없다. 음식물의 滯性·冷性·重性·粘性으로 인하여 粘液素의 적취가 생긴다. 이 적취는 春季에 이르면 햇빛에 의해 몸에 응축된 것이 풀어져 사람들에게 粘液素 질병을 일으킨다.

夏季에 이르면 풀들이 건조해져 수액을 잃어버리고 물은 매우 가벼워진다.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사

38)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ュルタ本集「第6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15.

용하는 과정에서 햇빛의 열로 인하여 몸이 건조해지고 물질의 乾性·輕性·透明性으로 인하여 體風素의 적취가 생긴다. 이러한 적취는 前兩季에 습기가 풍부한 땅에 습기를 끊임없이 받은 사람이 냉기가 있는 雨季에 이르러 여러 體風素性 질병을 일으킨다. 病素에 쌓인 병적 不調의 원인이 되는 것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雨季·冬季·夏季에 쌓인 病素가 秋季·春季·前兩季에 각기 병의 부조에 빠졌을 경우 반드시 그 구제법을 설명해야 한다. 膽汁素性의 병은 冬季에, 粘液素性의 병은 夏季에, 體風素性의 병은 秋季에 자연 진정된다. 이와 같이 病素의 積聚·激化·鎮靜에 관하여 지금 서술하여 마친다.

春의 특성은 오전에, 夏의 특성은 정오에, 前兩季의 특성은 오후에, 雨季의 특성은 황혼에, 秋의 특성은 야반에, 冬의 특성은 새벽에 볼 수 있다. 이처럼晝夜도 1년의 계절과 같아 寒·暑·雨의 특징이 있고 또한 病素의 積聚·激化·鎮靜을 수반함을 알 수 있다.

순조로운 계절은 초목도 물도 모두 생육에 적합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生氣·수명·체력·정력·활력을 얻을 수 있다. 계절이 불순하면 운명도 그렇게 된다. 실제로 적절한 寒·暑·風·雨를 얻지 못하면 百草과 물이 해를 입는다. 이러한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질병이 생기고 또한 惡疫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백초와 음용수는 해가 없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時’에 있어서 순조로운 계절일지라도 ‘Kṛitya(吉遮)’의 저주, ‘Rakṣas(羅刹)’의 노여움과 죄업으로 인하여 사람을 번뇌에 빠지게 한다. 한 지방에서 독초의 꽃향기가 바람에 날리면 다른 지방의 사람들은 병소의 성질이 어떠한 변화가 없더라도 기침·구토·감기·두통·열병 등으로 괴로워한다. 혹은 宿曜의 운행과 家·妻·臥·坐·乘·馱·寶·珠·집기에 불길한 징후가 나타나는 것도 상술한 것과 같은 병이 침범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병이 유행하는 곳을 떠나고 祓禳·贖罪의 의식을 행하고 주문을 외우고 護摩³⁹⁾의 의식을 행하고, 犧牲을 바치고, 합장 배례하

고, 苦行·內制·慈善·布施·獻堂을 하고, 神·브라만·스승에 귀의한다. 이렇게 하면 귀신과 화를 물리칠 수 있다. 다음은 순조로운 계절의 특징을 서술한다.

冬季에는 차가운 북풍이 불고, 하늘에 먼지가 가득 차 햇빛을 가리고 연못이 언다. 烏·犀·水牛·羊·象은 유연자득하다. ‘rodra(Symplocos racemos. 灰木屬)’·‘priyaṅgu(Aglaia odorata. 蘭樹)’·‘punnāga(Mallatus philippinensis. 加麻刺)’ 등의 수목은 꽃이 핀다.

冷季에는 찬 기운이 강하고 하늘에는 모든 방위에서 바람과 비로 가득 차 있다. 春季는 마치 Siddha神과 Vidyadhara神 신부가 붉은 색으로 칠한 발로 각인하듯이 꽃으로 단장한 미녀가 포옹할 때처럼 향기가 가득한 Malaya산에 남풍이 불어 정인이 기뻐하며 애정을 자극하여 부부 사이에 질투심을 없앤다. 기타 모든 특징은 冬季와 같다는 것은 현자가 안다.

春季는 하늘이 맑고 삼림은 ‘Kimśuka(Butea frondosa. 荳科)’·‘ambhoja(Calamus Rotang. 藤屬)’·‘vakula(Mimusops Elengi. 赤鐵科)’·‘cūta(Mangifera indica. 芒果)’·‘aśoka(Jonesia asoka. 無憂樹)’ 등의 꽃으로 장식되어 있다. 빠꾸기와 꿀벌 무리가 즐겁게 음악을 연주하고, 남풍으로 자라는 아름다운 새싹들은 광채를 발한다.

夏季는 태양이 뜨겁고 미풍이 서남에서 불어온다. 땅은 뜨겁고 강이 마르며 하늘은 불타는 듯하다. 오리는 雌雄이 서로 교태를 부리며 떠다니고 야수는 갈증으로 곤혹스러워 하며, 灌木·草本·蔓生식물은 시들고, 喬木은 잎이 떨어져 잎의 흔적을 남긴다. 前兩季는 하늘에서 서풍이 불어와 구름과 번개를 수반한 우렁찬 뇌성소리로 가린다. 땅에는 부드러운 綠草가 길게 자라고 膿脂蟲이 광채를 발하고, ‘kadamba(Anthocephalus Cadamba. 茜草科)’·‘mīpa(Ixora coccinea. 茜草科)’·‘kuṭaja(Wrightia antidysenteria. 夾竹桃科)’·‘sarja(Shorearobusta. 婆羅雙樹)’·‘ketaka(Pandanus odoratissimus. 露兜)’의 꽃으로 장식되어 있다.

雨季는 강물이 불어 강변의 수목이 넘어지고, 연

을 던지는 奉供 의식을 말한다.

39) homa : 구역은 ‘燒施’, 음역은 ‘護摩’이다. 즉 불속에 물건

못에는 물이 가득차고, 'kumuda(Nymphaea Lotus. 白睡蓮)'·'nilotpala(Nymphaea stellata. 青睡蓮)'이 광채를 발한다. 육지에는 구렁이나 웅덩이를 막론하고 모두 수많은 곡류로 장식되고, 하늘에는 뇌성이 잦아들고 비가 내리는 곳은 햇빛이 구름에 가린다.

秋季는 햇볕이 따뜻하게 적갈색을 띠고 하늘이 맑아 흰 구름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연못에는 수련이 빛나고 거위는 어깨를 비비면서 그 사이에서 논다. 저지대는 진흙이 있고 고지대는 건조하며 평지에는 수목으로 덮이고, 'bāṇa(Barleria cristata. 爵牀科)'·'saptāhva(Mimosa concinna. 含羞草屬)'·'bandhūka(Pentapetes phoenicea. 午時花)'·'kāśa(Saccharum spontaneum. 葜根子草)' 등의 꽃이 장엄하다.

건강에 가장 적합한 계절이나 이와 상반되는 계절이나 혹은 불순한 계절을 막론하고 각 계절의 특성에 의해 'doṣa(病素)'가 격화된다. 따라서春季에는 粘液素, 秋季에는 膽汁素, 雨季에는 體風素를 제거하여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다.

7. 'Yantra(얀트라)'의 용법

'yantra'는 날이 없는 외과공구인 鈍器를 뜻한다. 『Suśruta-saṃhitā』 제1권, 제7장은 「yantravidhyāyā(鈍器用法章)」이라 하였다. 그 종류와 용도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yantra에는 101종이 있고 柄이 yantra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柄이 없으면 yantra는 사용할 수 없고 yantra의 조각은 모두 그 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물이 체내에 들어오면 정신과 육체에 고통을 주는 것이 śaya이고, 이러한 śaya를 제거하는 方便⁴⁰⁾이 곧 yantra이다. yantra를 대별하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이다.

- (1) 'svastika-yantra(鉗子類)'
- (2) 'sandamśa-yantra(鑷子類)'
- (3) 'tāla-yantra(顎狀 혹은 鑰狀)'
- (4) 'nādi-yantra(管狀)'
- (5) 'śalaka-yantra(棒狀)'

40) 梵語인 Upaya의 의역으로 '善權'·'變謀' 등으로 번역한다.

(6) 'upayantra(補助的)'

제(1)형에 속하는 것이 24종, 제(2)와 제(3)형에 속하는 것이 2종, 제(4)형에 속하는 20종, 제(5)형에 속하는 것이 28종, 제(6)형에 속하는 것이 25종이 있다. 이러한 yantra는 주로 철로 만들어지고 철이 없을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체한다. 이러한 공구의 앞쪽 끝은 대부분 각종 맹수나 맹금의 주둥이의 형상과 비슷하다. 따라서 yantra의 끝은 동물의 주둥이에 의거하거나 혹은 의서에 나타나고 스승이 전수하고 기타 yantra의 형상에 의거하여 적당하게 만든다.

이에 偈頌이 있어 :

“yantra를 만들려면 그 끝은 견고하고 매끄럽게 하고 또한 그 자루도 매우 견고하게 하여 모양을 좋게 한다.”⁴¹⁾

(1) 'svastika-yantra(鉗子類)'는 길이가 18aṅgula 즉 약 1자 1치이고 형상은 사자·호랑이·이리·하이에나·곰·표범·매 등의 주둥이와 같은 끝을 하고 있고, 그 자루는 강낭콩 모양의 양쪽 끝을 못으로 고정하고 그 끝이 굽어져 갈고리 모양이다. 이러한 기구는 끝까지 이르는 깊은 곳의 이물을 빼는데 사용한다.

(2) 'sandamśa-yantra(鑷子類)'는 자루가 있는 것과 자루가 없는 2종이 있고 길이가 16aṅgula 즉 대략 1자이다. 이는 皮·肉·筋·脈에 있는 이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다.

(3) 'tāla-yantra(顎狀 혹은 鑰狀)'는 길이가 12aṅgula 즉 대략 7치 5푼으로 형상은 물고기의 턱과 같은 모양을 하고 單·複의 두 가지 모양으로 나뉘고 外耳와 鼻腔의 이물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

(4) 'nādi-yantra(管狀)'는 그 종류가 많고 용도가 각기 다르다. 한쪽의 입을 열게 하거나 양쪽의 입을 열게 한다. 이는 消火器管과 여러 孔竅의 이물을 빼는데 사용하고, 환부를 검사하거나 혹은 吸血에 이용하거나, 혹은 기타 수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yantra는 관 구멍의 굵기와 그 용도에 따라 굵기와 길이가 다르며, 痔瘻·痔核·腫

41)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ュルタ本集「第7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19.

瘍·膿瘍·灌腸·尿道注射·陰囊水腫·腹水·熏香吸入·尿道狹窄·直腸狹窄 등에 사용한다. 또한 호리병이나 빨로 만든 ‘吸角’도 포함된다. 아래에 이러한 기계를 상세히 기술한다.

(5) ‘śalaka-yantra(棒狀)’는 여러 종류이고 그 용도도 다양하며 그 굵기와 길이는 개개의 목적이 적합하게 한다. 그 형상은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다.

- ① ‘gaṇḍūpada(지렁이 모양)’
- ② ‘śarapuñkha(화살 것 모양)’
- ③ ‘sarpaphaṇa(뱀 머리 모양)’
- ④ ‘vaḍīśa(갈구리 모양)’.

첫 번째는 膿瘍을 찾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환부를 절개하여 이물을 빼내는 것이고, 세 번째의 것은 이물을 흔들는데 사용하는 것이고, 네 번째의 것은 이물을 갈고리로 걸어서 제거하는 것이다. 孔竅에 있는 이물을 제거하려면 앞쪽 끝이 완두콩 반 정도이고 끝이 약간 굽은 것 두 개를 사용한다. 고름을 닦아낼 경우에는 바늘 끝에 솜을 감은 것을 6 개를 사용한다.

부식제를 바를 때에는 앞쪽 끝이 손가락 모양으로 움푹 파인 기구 3개를 사용한다. 燒灼法을 행할 때에는 여섯 개의 śalaka를 사용하지만 그 중에 3개는 끝이 갈고리 모양을 하고 3개는 ‘jambu(Eugenia jambolana. 桃金娘科 蒲桃屬)’의 열매와 같은 모양을 한다. 鼻腔의 종양을 제거하려면 하나의 棒은 그 끝이 ‘kola(Zizyphus Jujuba)’ 열매 씨를 반쪽으로 낸 정도의 크기이고 가운데가 파이고 주변이 예리한 것을 사용한다. 點眼用에는 양쪽이 ‘kalaya(Pisum sativum. 완두)’처럼 둥글고 앞쪽 끝이 꽃봉오리 같은 것을 사용한다. 요도 세척에 사용하는 것은 ‘malati(Agnosma Caryophylla. 夾竹桃科)’의 꽃자루 끝 정도의 굵기로 둥근 것을 사용한다.

(6) ‘upayantra(補助的)’의 용품에는 線·繩·縲帶·革·樹皮·藤·布·圓磔 및 石·槌·掌과 蹠·指·舌·齒·爪·口·毛·馬勒·樹枝·唾·‘pravahana(催吐·催下·催淚藥)’·환자를 위로하는 것·磁石·腐蝕劑·燒灼 용품 등이다.

“이러한 upayantra는 전신과 관절·내장·동맥 등

과 같은 신체의 각 부분에 경우에 따라 모두 사용할 수 있다.”⁴²⁾

yantra술에는 다음과 같은 24종이 있다.

- ① ‘nirghātana(이물을 흔들어서 뽑아내는 것)’.
- ② ‘pūraṇa(방광·눈 등에 기름을 주입하는 것)’.
- ③ ‘bhandana(끈 등으로 묶는 것)’.
- ④ ‘vyūhana(가시를 뽑기 위해 국부를 용기시켜 절개하는 것)’.
- ⑤ ‘vartana(확장된 것을 수축시키는 것)’.
- ⑥ ‘cālana(이물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흔들어 움직이게 하는 것)’.
- ⑦ ‘vivartana(yantra를 회전시키는 것)’.
- ⑧ ‘vivarāṇa(노출시키는 것)’.
- ⑨ ‘piḍana(농을 배출시키기 위해 손으로 누르는 것)’.
- ⑩ ‘mārga-viśodhana(요도·직장 등 管腔을 세정하는 것)’.
- ⑪ ‘vikarśaṇa(근육 등에 찢린 이물을 빼내는 것)’.
- ⑫ ‘āharaṇa(이물을 적출하는 것)’.
- ⑬ ‘añchana(이물을 뽑아 올리는 것)’.
- ⑭ ‘unnamana(함몰된 두개골 등을 끌어올리는 것)’.
- ⑮ ‘vinamana(골절된 골의 끝에 융기된 것을 누르는 것)’.
- ⑯ ‘bhañjana(두골을 안마하는 것, 또한 전신안마)’.
- ⑰ ‘unmathana(이물이 뚫고 들어간 길을 찾는 것)’.
- ⑱ ‘acūṣaṇa(흡각·호리병 혹은 입으로 惡乳·惡血 등을 빨아내는 것)’.
- ⑲ ‘eṣaṇa(지렁이 모양을 한 探鍼 등으로 瘻管과 이물의 소재를 찾아내는 것)’.
- ⑳ ‘dāraṇa(두골을 절단하는 것)’.
- ㉑ ‘rijūkarāṇa(굽어진 것을 바로 펴는 것)’.

42)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ュルタ本集「第7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21.

② ‘prakṣāḷana(물로 환부를 씻는 것)’.

③ ‘pradhmana(관을 통하여 嘔吐劑를 비강에 붙여넣는 것)’.

④ ‘pramārjana(눈 등에 이물을 씻어내는 것)’.

“이물에는 무수한 종류가 있어 현명한 의사는 자신의 지혜로 개개의 경우를 고려하여 yantra의 사용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불변의 규칙이다.”⁴³⁾

너무 굵은 것, 質弱한 무용지물, 너무 긴 것, 너무 짧은 것, 앞쪽 끝이 결손 되어서 파악하기 어려운 것, 일부만만 파악할 수 있는 것, 굽어진 것, 늘어진 것, 꼭대기가 너무 솟아난 것, 고정시킨 못이 혈령한 것, 끝이 연약한 것, 수갑이나 족쇄가 약한 것은 yantra로 결점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12가지 결점이 없고, 길이가 18aṅgula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의사는 이러한 것으로 수술을 행한다. 사자 주둥이와 같이 생긴 기계 등으로 곁에 드러난 이물을 제거하고, 왜가리 부리와 같이 생긴 것 등으로 숨어서 드러나지 않는 이물을 제거한다. 이 때는 반드시 의서에 규정된 용법에 따라 서서히 이물을 제거한다.”⁴⁴⁾

yantra에서는 왜가리 부리와 같은 것이 가장 좋아 모든 경우에 적용하여도 전혀 장애가 없다. 그 까닭은 이러한 yantra는 어떠한 방향으로도 회전할 수 있고, 쉽게 삽입할 수 있으며 이물을 집어대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8. Śāstra의 용법

‘Śāstra(銳器)’의 원래 뜻은 칼·화살·무기이다. 날이 없는 ‘yantra(鈍器)’에 대해 ‘śāstra’는 날이 있는 기구로 오늘날 말하는 ‘메스’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śāstra-karman(외과수술)’, ‘śāstra-karman-kṛt(외과의)’ 등의 말이 모두 여기에서 기원하였다. 『Suśruta-saṃhitā』 제1권, 제8장에는 ‘śāstrāvacāraṇiyandhyāya(śāstra용법)’이라

하였다.

‘śāstra’에는 다음과 같이 20종이 있다.

① ‘maṇḍalāgra(머리가 둥근 것)’.

② ‘karapatra(뜸)’.

③ ‘vṛiddhipatra(vṛiddhi라는 식물의 잎 모양과 비슷한 것)’.

④ ‘nakhaśāstra(손톱을 자르는 小刀)’.

⑤ ‘mudrikā(반지와 같은 小刀)’.

⑥ ‘utpalapatraka(연꽃 모양의 기구)’.

⑦ ‘ardhadhāra(날이 하나인 기구)’.

⑧ ‘sūci(침)’.

⑨ ‘kuśapatra. Poa Cynosuroides(吉祥草의 잎과 같은 기구)’.

⑩ ‘āṭimukha. Turdus Ginginianus(지빠귀 부리처럼 생긴 기구)’.

⑪ ‘śarārīmukha(왜가리 부리처럼 생긴 칼)’.

⑫ ‘antarmukha(반월형으로 안쪽에 날이 있는 칼)’.

⑬ ‘trikūrcaka(3개로 구성된 亂刺하는 칼)’.

⑭ ‘kuṭhārika(도끼 모양의 기구)’.

⑮ ‘vṛihimukha(미립상의 套管鍼)’.

⑯ ‘āra(제화공이 사용하는 가죽을 깎는 바늘모양의 기구)’.

⑰ ‘vetāsapatraka. Calamus Rotang(등나무 잎사귀와 같은 기구)’.

⑱ ‘vaḍīsa(뽕쪽한 갈구리가 있는 기구)’.

⑲ ‘dantaśaṅku(치석을 제거하는 기구)’.

⑳ ‘eṣaṇi(探鍼)’.

①~②는 절제하고 또한 ‘chedana(절단)’과 ‘lekhana(亂切)’하는데 쓰이고, ③~⑦은 절제와 ‘bhedana(절개)’하는데 사용한다. ⑧~⑬은 배농과 ‘visrāvaṇa(사혈)’에 쓰이고 침은 봉합에 사용한다. ⑭~⑰과 ⑱는 ‘vyadhana(천자)’하는데 쓴다. ⑱~⑲는 拔除, ⑲는 探鍼 검사법에 쓴다. 이상 8가지 수술에서 śāstra에 관한 적용범위와 해설을 마친다.

다음으로 수술을 행할 경우 이러한 기구를 다루는 법에 대해 대략 서술한다. 여기에서 vṛiddhipatra는 손잡이와 칼날 사이를 잡는다. 기타 모든 절개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43)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ュルタ本集「第7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22.

44)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ュルタ本集「第7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22.

vridhipatra와 maṅḍalāgra로 亂切하는데 사용할 때에는 손은 약가 들어서 잡고, 배농과 자락을 할 때에는 주로 손잡이의 앞부분을 잡는다. 특히 어린이·노인·약한 사람·겉이 많은 사람·여자·왕·왕자 등은 trikūrcaka를 사용하여 배농 사혈시킨다. vrīhimukha를 잡을 때에는 엄지와 식지로 잡고 자루를 손바닥으로 쥔다. kuṭhārika는 왼손을 받쳐주고 오른쪽 엄지에 힘을 주어 누르고 같은 손의 중지로 타격한다. āra, karapatra, eṣaṇi는 그 손잡이를 잡는다. 기타 기구는 경우에 따라 적당하게 잡는다.

이러한 기구의 형상은 일반적으로 그 명칭에 의해 나타난다. nakhaśāstra와 eṣaṇi의 길이는 8aṅgula이다. sūcī에 관해서는 뒤에 기술한다. vaḍīśa와 dantaśaṅku의 끝은 굽어 있고 날이 예리하며 보리의 새잎 모양과 같다. eṣaṇi의 끝은 지렁이 모양을 하고 있다. mudrika의 크기는 식지 맨 앞쪽의 指骨과 같다. śarārīmukha의 길이는 10aṅgula이고 기타의 것은 6aṅgula이다.

좋은 손잡이를 갖추고 양질의 철로 만들고 날은 날카롭고 모양이 좋고 끝이 정교하게 되어 있고, 이를 보아도 공포감이 들지 않는 이와 같은 śāstra가 완전한 것이다. 휘어지고·날이 둔하고·새긴 것에 흠이 있고·날이 거칠고·너무 크고·너무 작고·너무 길고·너무 짧은 이 8가지는 śāstra의 결점이다. karapatra를 제외하고 이와 성질이 상반되는 것을 채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날이 거친 karapatra는 골을 자르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이다. 절개에 사용하는 날은 ‘masūra(Vicia lens 扁豆)’의 잎의 주변과 같이 넓어야 한다. 亂切에 사용하는 것은 그 반이 된다. 천자에 사용하고 배농과 자락에 사용되는 것은 머리카락과 같고 절제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또한 그 반이 된다. 이러한 기구를 담그려면 강한 성질을 가진 약·水·油 3가지에서 하나를 이용한다. 그 중에 강한 성질을 가진 약액에 담그는 것으로는 화살과 기타 이물 및 골을 절단하는 경우에 이용한다.

물속에 담그는 것은 육을 절제하고, 절개하고 혹은 자를 때에 이용한다. 기름 속에 담그는 것은 정

맥의 천자와 신경 등을 절단할 경우 이용한다. 이러한 기구를 갈 때에는 녹두 색깔의 슛돌을 사용하고, 칼날이 손상되지 않게 보존하려면 ‘śalmali(Bombax heptaphyllum. 綿)’의 재료로 만든 상자를 사용한다.

이에 偈頌이 있어 :

“śāstra’를 잘 갈면 그 날이 죽히 모발을 벨 수 있다. 보존을 잘 하고 치수를 적당하게 조절하고 위치가 적당한 것이 수술용으로 제공될 수 있다.”⁴⁵⁾

‘anuśāstra(代用銳器)’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대나무·水晶·유리·紅玉·水蛭·火·腐蝕劑·爪、‘goji(Elephantopus scaber)’의 잎·‘śephalikā(Nyctanthes arbor-tristis. 木犀科)’의 잎·‘śaka(Tectonagrandis)’의 잎·嫩芽·毛·指가 해당한다.

소이나 śāstra를 두려워하는 자에 대해 혹은 śāstra가 없을 경우 절제와 절개를 하려면 의사는 대나무·水晶·유리·紅玉 4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 拔除·切除·切開의 경우 적당하게 사용하려면 爪로 할 수도 있다. 腐蝕劑·火·水蛭에 관한 용법은 뒤에 기술하기로 한다. 병이 구강과 眼脛에 있을 때에는 상술한 goji·śephalikā·śaka의 잎으로 자락할 수 있다. 探鍼이 없을 경우에는 毛·指·嫩芽로 대용할 수 있고, 현명한 의사는 기구가 완비된 숙련된 대장장이에게 명하여 순수한 철강제로 다듬어 śāstra를 제작하게 한다. 수술을 잘하는 의사는 항상 성공하며 따라서 śāstra의 사용이 숙달되도록 항상 노력한다.

9. 연습 방법

의학은 과학이면서 실용성이 강한 기술이기도 하다. 특히 외과는 책을 통한 지식에서 실제 조작에 이르기까지 매우 긴 과정이 있다. 『Suśruta-samhitā』 제1권, 제9장은 「yogyāsūtrīyādhyaya(演習法章)」라 명명하고 기술된 내용은 의사가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수술의 기술을 연습시키는지에 관한 것이다.

45)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ュルタ本集「第8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25.

학생은 모든 의서의 의의를 배워야 하고 스승은 이를 실습시켜야 한다. 스승은 절단 등의 수술을 어떻게 하고 油劑와 기타 약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실제로 지도해야 한다. 의학에 정통한 사람일지라도 실지로 수업을 받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puṣpaphala(Benincasa cerifera. 冬瓜)’ · ‘alāvū(Lagenaria vulgaris. 胡蘆)’ · ‘kālindaka(Citris vulgaris. 西瓜)’ · ‘trapusa(Cucumis sativa. 胡瓜)’ · ‘utitissmus(甜瓜)’ · ‘karkāruks(Benincasa cariferavar. 冬瓜의 변종)’ 등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cheya(절단술)’을 시연하며 ‘utkarta(割去)’ 혹은 ‘parikartana(團截)’하는 기술을 가르친다.

스승은 가죽이나 오줌보로 만든 주머니에 물이나 진흙을 넣고 ‘bhedyā(절개술)’을 연습시키고, 모피를 펼쳐놓고 ‘lekhyā(亂刺術)’을 연습시키고, 죽은 가축의 정맥 또는 ‘utpata(青睡蓮)’ 줄기로 ‘vedhya(穿刺術)’을 연습시키고, 쯤이 먹은 나무 · 대나무 · ‘nala(Phragmites Karka. 갈대屬)’ 질 · 마른 葫蘆의 주둥이로 ‘eṣya(探鍼術)’을 연습하고, ‘panasa(Artocarpusintegrifolia. 菠蘿蜜)’ · ‘vinbī(Cephalandra indica. 苦瓜屬)’의 果肉 혹은 죽은 가축의 치아로 ‘āharya(拔除術)’을 연습하고, 밀납을 바른 ‘śālmālī(Bombax heptaphyllum 綿)’ 판으로 ‘visrāvya(排膿刺絡術)’을 연습하고, 넓고 튼튼한 형질의 양쪽 끝이나 혹은 부드러운 가축의 양쪽 끝으로 ‘sīvyā(縫合術)’을 연습하고, 인형의 ‘āṅga(六肢 머리 · 몸통 · 사지)’ · ‘pratyaṅga(小肢 이마 · 코 · 턱 · 손가락 · 귀 등)’의 각 부위에 따라 ‘bandha(繃帶術)’을 연습시키고, 부드러운 肉片으로 귀를 싸매거나 青睡蓮의 줄기로 관절을 싸매는 연습을 하고, 부드러운 육편으로 소작과 ‘agni-kṣāra(腐蝕術)’을 연습하고, 물을 채운 물병의 옆쪽 주둥이나 혹은 호리병의 주둥이로 ‘netra(導管 尿道 · 陰 · 子宮)’에 ‘uttaravasti(주사기)’ · ‘vasti-yantra(관장기)’의 ‘vasti-yantra(挿入術)’을 연습시킨다.

이에 偈頌하길 :

“현명한 의사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습용에 적합한 물건에 규정에 따라 연습하면 수술할 때

에 과실을 범하거나 해매지 않는다. 따라서 śāstra · 腐蝕 · 燒灼의 수술에 숙련되고자 하는 사람은 상술한 물건으로 각종 수술을 연습해야 한다.”⁴⁶⁾

10. 行醫의 자격

『Suśruta-saṃhitā』 제1권, 제10장은 「viśikhānupraveśaniyādhyāya(往診章)」이라 명명하였다. 의학을 배우는 자는 어떠한 조건을 구비해야 ‘왕진’을 갈 수 있고 어떻게 환자를 진찰할 수 있는지를 주로 강술하였다.

‘왕진’을 할 수 있는 의사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의서를 공부하여 그 의의를 이해하고, 수술을 실습하여 스스로 연습하고, 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암송하여 국왕의 허가를 받은 의사이고, 손톱과 두발을 짧게 깎고 몸을 청결하게 하고, 흰옷을 입고, 우산을 쓰고 지팡이를 들고 신발을 신고, 오만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이 넘친 말을 하고, 속이는 일이 없고, 인류의 친구가 되고, 착한 조수를 데리고 다니는 이러한 의사가 되어야 비로소 왕진을 갈 수 있다.

使者의 (용모, 언어, 복장 등의 방면에 있어서) ‘nimitta(길조)’와 ‘śakuna(매 · 솔개 · 독수리 등 대형의 새)’에 관한 ‘maṅgala(길상)’ 등이 순조롭게 먼저 나타날 때에 의사는 환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앉아서 환자를 보고 만지고 물을 수 있다. 이러한 3가지(視 · 觸 · 問) 진찰법에 의해 대체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것이 아니다. ‘viyñāna-upāya(질병의 진찰)’은 실은 6가지가 있다. 즉 귀 등 오관에 의한 것과 지금 말한 질문에 의한 진찰이다.

그 중에 ‘śrotra(聽官=indriya)’에 의해 진찰하는 징후는 「瘍流出液」(제22장)과 「瘍診察章」(제28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이러한 병이 있으면 피가 나오는 것에 기포가 흘러나오는지 공기가 빠지는 소리가 나오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sparśana-indriya(觸官)’에 의해 알 수 있는 것

46)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ュルタ本集「第9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27.

은 冷·熱·粗·滑·硬·軟 등과 熱病·肺癆 등이 촉감에 있어서의 증상이다.

‘cakṣur-indriya(視官)’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은 신체의 肥瘦·활력의 표징·힘과 색의 변화 등이다.

‘rasa-indriya(味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비노기병 등에서 나타나는 味の 증후이다⁴⁷⁾. ‘ghrāṇa-indriya(嗅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ariṣṭa-līṅga(죽을징조)’ 등의 방면이고, 膿瘍 혹은 非膿性瘍에 냄새의 특징이 있다.

‘praśna(問診)’에 의한 것은 장소·시기·종족의 성·음식물의 기호·병의 기원·동통의 증진·체력·소화력·下風·대소변이 잘 나오는지 여부·병이 지속된 기간 등의 특징을 알아낸다. 상술한 진찰법을 채용한다면 스스로 진찰하거나 代診에 의한 것을 막론하고 병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이에 偈頌하길 :

“병에 대해 視診에 착오가 있거나 혹은 환자의 대답에 거짓이 있거나, 또한 정확한 축진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병은 의사를 미혹에 빠지게 한다.”⁴⁸⁾

이와 같이 모두 진찰을 한 뒤에 의사는 치료할 수 있는 병은 치료를 하고, 경감시킬 수 있는 병은 경감시키고,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1년 이상 지속되는 고질은 대부분 피해야 한다. 다음에 기술하는 사람의 병은 치료할 수 있을지라도 통상 치료가 매우 어렵다. 즉 브라마나·왕·부녀자·소아·노인·겉쟁이·왕의 신하·도박꾼·허약자·生物識⁴⁹⁾·병을 감추는 자·가난한 사람·슬퍼하는 사람·癩癩이 있는 자·자제심이 없는 자·고독하여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등이다. 이와 같이 진찰을 한 후에 치료를 행하는 사람은 德·富·사랑·명예를 얻을 수 있다.

이에 偈頌하길 :

“良醫는 부인과 함께 앉거나 사귀거나 희롱을 피해야 하고, 자기 부인이 주는 음식물 이외의 施物은 받지 말아야 한다.”⁵⁰⁾

47) 중국에서는 唐代에 당뇨병 환자에 대해 오줌이 달다고 기재가 있다.

48)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ュルタ本集「第10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28.

49) 뜻이 불명하다.

11. 腐蝕劑

『Suśruta-saṃhitā』 제1권, 제11장은 「腐蝕劑의 제조법과 Kṣāra-pāka-vidhy-adhyāya(用法章)」이라 하고 ‘Āyurveda(아유르베다)’에서 중요한 자리를 점하고 있는 특수약물인 ‘kṣāra(腐蝕劑)’를 소개하였다.

부식제는 ‘śāstra(銳器)’·‘anuśāstra(代用銳器)’보다 더욱 중요하다. 부식제는 切除·切開·亂刺術을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病素의 부조를 제거할 수 있으며, 또한 특수한 치료용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kṣāra’의 어원은 ‘kṣar(움해시킨, 녹여서 없앴)’ 또한 ‘kṣan(傷, 害를 일으킴)’이라는 어근에서 유래하였다. 부식제는 여러 가지 약품과 결합하여 病素의 부조를 제거하고, 백색이기 때문에 ‘sāmya(冷濕性)’이 있다. 냉습성을 띠고 있지만 燒灼, 化膿, 裂開 등의 불가항력이 있다. 따라서 부식제는 실로 ‘agneya(乾熱性)’ 약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辛性·暖性·苛性·化熱性·腐蝕性을 가지고 있고 ‘śodhana(소독작용)’·‘ropana(형성시키는 작용)’·‘śoṣaṇa(건조작용)’·‘stambhana(지혈작용)’·‘lekhana(亂刺作用)’이 있으며, ‘krimi(기생충)’·‘āna(소화되지 않은 변)’·粘液素 부조로 인한 ‘kapha-kuṣṭha(피부병)’·‘viṣa(독)’·‘medas(지방과다)’ 등을 없애는 것이지만 과용할 때에는 정액을 손상시킨다.

부식제에는 ‘pratisāraṇīya(외용)’과 ‘pāniya(내복)’ 두 가지가 있다.

외용은 ‘kuṣṭha(癩病 광의의 피부병)’·‘kiṭīma(피부병의 일종)’·‘dadru(피부병의 일종)’·‘kilāsa(白皮症)⁵¹⁾’·‘maṇḍala(圓斑性發疹)⁵²⁾’·‘bhagandara(痔瘻)’·‘arbuda(腫瘍)’·‘duṣṭa-vraṇa(악성궤양)’·‘nāḍī(瘻瘡)’·‘carmakīla(疣)’·‘tilakālaka(痣)’·‘nyccha(黑子)’·‘vyaṅga(雀斑)’·‘vidradhi(외부적

50)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ュルタ本集「第10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28.

51) 글자의 뜻으로 추측하면 白癩風인 것 같다.

52) 글자의 뜻으로 추측하면 牛皮癬인 것 같다.

인 악성농양)·‘maśaka(피부병의 일종으로 콩 모양의 흑색 소농포가 생기는 것)’·‘viṣa(毒)’ 등을 치료한다.

이 밖에 구강질환에서 ‘upajihvā 혹은 anuśāstra(舌下腫瘍)’·‘adhijhva(舌上膿瘍)’·‘upakuśa(齒齦膿瘍)’·‘dantra-vāidarbha(외상성齒根이완)’·3종의 ‘rohiṇi(咽喉炎)’ 등 7가지 질병이 있을 때에는 ‘anuśāstra(代用銳器)’를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내복용은 ‘gala(嚙下 곤란을 수변하는 병 혹은 독물을 과용하여 일으키는 병)’·‘gulma’(비장 종대, 기타 복부 종창)’·‘udara(腹水)’·소화시키는 火의 ‘agni-saṅga(정체)’·‘ajirna(소화불량)’·‘arocaka(식욕부진)’·‘ānāha(변비)’·‘śarkara(尿砂)’·‘aśmari(尿石)’ 및 내부의 악성종양·기생충·毒·‘arśas(痔核)’ 등을 치료하는데 쓴다.

그러나 부식제는 ‘raktapittin(대출혈성 환자)’·열병환자·膽汁質의 사람·유아·노인·허약한 사람·현훈·술에 대취한 사람·실신한 자·‘timira(黑内障)’환자·기타 이와 비슷한 환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내복하는 부식제의 제조법은 외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에 의하며 (특정한 약용식물들)태운 재를 물에 거른다. 자세한 제조법은 따로 기술한다.

부식제에는 軟·中·峻 3가지가 있고 이를 만들 고자 하는 사람은 가을의 길일에 목욕제계를 한 후에 산속 길상한 곳에서 생산되어 손상을 받지 않는, 중간 크기의 ‘asitamuskaka(Schrebera swietenoides, Roxb. 木犀科)’를 골라 향을 피워 잡기를 몰아내고 깨끗하게 하고 다음날 벤다.

“너는 화력을 가지고 있고, 너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고, 너의 힘을 잃지 않는다. 상서로운 것이 여기에 머물지 말고 너는 나의 업을 돕고난 다음에 천국으로 가라고 ‘mantra(주문)’을 외우고 희고 붉은 천 송이의 꽃으로 ‘homa(燒供)’을 행한다.”⁵³⁾

다음 그 나무를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에 쌓고, ‘sudhāśarkara(석회석)’을 투입하고 胡麻의 줄기로 불을 붙인다. 불이 꺼진 후에

나무의 숯과 ‘bhama-śarkarā(石灰덩어리)’를 각기 수습한다.

앞과 같은 방법으로 ‘kuṭaja(Wrightia antidysenterica, Grah. 夾竹桃科)’·‘palaśa(Butea Frondosa, Roxb. 荳科)’·‘aśvakarṇa(Shorea robusta, Gaertn. 沙羅雙樹)’·‘pāribhadra(erythrina indica, Lamk. 刺桐梯沽)’·‘vibhītaka(Terminalia bellerica, Roxb. 使君子科)’·‘āragbadha(Cassia Fistula, L. 阿勃勒)’·‘tilvaka(Symplocos racemosa, 灰木屬)’·‘arka(Calotropis gigantea, Br. 蘿摩科)’·‘snuhi(Euphoria neriifolia, L. 大戟科)’·‘apāmārga(Achyranthes aspera, L.)’·‘pāṭalā(Bignonia suaveolens, Roxb.)’·‘naktamāla(Pongamia glabra, Vent. 五葉藤)’·‘vṛṣa(Tustica Adhatoda, Roxb. 爵棘科)’·‘kadali(Musasapientum, L. 甘蔗)’·‘citraka(Plumbago zeylanica, L. 인도차스민)’·‘pūtika(Guilandina Bonducella, L.)’·‘indravṛikṣa(Pinus Deodara, Roxb.)’·‘āsphotā(Vallisneria spiralis, Wall. 夾竹桃科)’·‘saptacchada(Alstonia scholaris, Br.)’·‘agnimantha(Premna spinosa, Roxb.)’·‘guñjā(Abrus precatorius, L. 相思子)’·‘kośataki의 4종(즉 Luffa acutangula, Roxb·Luffa graveolens, Roxb·L. aegyptica, Mill·L. echinata, Roxb)의 뿌리·열매·잎·가지를 태운다.

1droṇa(32seer=29. 756kg)로 만든 알칼리성 ‘灰(kṣāra)’를 6droṇa의 물 또는 소의 오줌에 섞어서 휘젓고, 21번 걸러서 그 여과액을 큰 솥에 넣고 서서히 국자로 저어서 졸인다. 그 액이 투명·적색·苛性·끈적거리게 될 때에 이를 넓은 보자기에 부어 걸러서 찌꺼기를 버리고 여과된 액을 다시 졸인다. 이렇게 만든 알칼리성 액에서 1~1. 5kuḍava(1kuḍava1/2seer=0. 467kg)를 취한다.

그리고 나서 ‘kaṭaśarkarā(Caesalpinia Bonducella, Fleming)’·‘bhasmaśarkarā(앞에서 나온 석회덩어리)’·‘kṣīrapaka(2개의 介類)’·

53)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ュルタ本集「第11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30.

‘śankhanāhi(螺類)’ 각기 8pala(1pala=1/8seer=0.117kg)를 철제 용기에 별경게 달구어 앞에서 얻은 알칼리성 액체에 넣어 분말을 만든다. 이 분말을 2drona의 알칼리성 액체에 가하고 조심스럽게 저어서 졸인다. 반드시 너무 길거나 몹시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이 충분히 졸인 후에는 불에서 내려 철제 항아리에 넣고 입구를 잘 봉하여 잘 간수한다. 이것이 ‘madhyama(中度)’의 가성알칼리이다. 태운 介, 螺 등 기타의 것을 섞지 않고 졸인 것이 ‘samvyūhima(軟性가성알칼리)’이다.

‘pratīvāpa(혼합제)’는 ‘danti(Crotonpolyandrus, Roxb. 巴豆屬)’ · ‘citraka(Plumbago zeylanica, L. 인도차스민)’ · ‘dravanti(Croton polyandrus, 巴豆屬)’ · ‘lāṅgalki(Methonica sperba, Lamk)’ · ‘pūtika(Caesalpinia Bonducella, Fleming)’의 어린 싹 · ‘tālapātri(Curculigo orchioides, Garrtn. 仙茅)’ · ‘viḍa(=viṭ-lavana, 암적색의 소금)’ · ‘suvarcika(탄산나트륨)’ · ‘kanakakṣīri(Cleome felina, L. f. 醉蝶花屬)’ · ‘hiṅgu(Ferula Asafoetida, L. 阿魏)’ · ‘vacā(Acorus calamus, L. 菖蒲)’ · ‘viṣa(Aconitum ferox, Wall. 烏頭類)’를 마찬가지로 세말하여 각 1śukti(=1/2pala=58g)의 양으로 혼합제를 만든다. 이러한 혼합제를 섞어 졸이면 ‘pākya(峻性)’의 苛性알칼리가 된다. 질병의 성질과 환자의 힘에 따라 적절하게 이 3가지의 부식제를 사용한다. 약의 힘이 약할 때에는 약의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 강한 알칼리성 액을 가한다.

이에 偈頌하길 :

“너무 준열하지 않고 너무 연약하지도 않고, 색 같은 너무 희지 않고, 滑性 · 粘性 · 催泌性 · 保健性 · 速效性의 부식제가 8가지 좋은 성질을 가진 것이라 한다. 너무 연약하고 빛깔이 너무 희고, 너무 熱性이고 너무 준열하고, 粘性이 과도하고, 너무 가라앉고, 너무 질고, 충분히 졸이지 않고, 약의 성분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불량한 약이라 한다.”⁵⁴⁾

부식제로 치료할 수 있는 병에 걸린 환자는 바람을 쓰이지 말고 햇빛에 직접 노출시키지 말고 사람

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서 「의료 필수품」 章에 기술된 규칙에 따라 준비물을 갖추고 환자의 환부를 진찰하여 그 곳을 마찰하고 굵어서 상처를 낸 후에 약봉으로 부식제를 바른다. 백 마디 말을 할 정도의 시간동안 기다린다.

“부식제를 바른 환부가 흑색을 띠면 이는 燒灼시킨 효과를 나타내는 징표이다. 이 때에 ‘amlavarga(酸味類)’의 약품에 酥와 감초를 넣고 이를 그 부위에 붙이면 진통작용이 있다. 그러나 병의 뿌리가 깊이 박혀있어 부식약의 소작에 의해 생기는 동통을 진정시키지 못할 때에는 아래에 서술하는 연고를 그 곳에 바른다. 즉 발효시킨 ‘酸粥(amlā-kāñjika)’의 찌꺼기와 胡麻와 감초를 등분하여 갈아서 부셔서 섞은 것을 환부에 바른다. 감초를 섞은 胡麻의 泥膏에 酥를 가하고 또한 다시 酸味 · 알칼리와 熱性이 있는 酸粥을 섞어서 함께 사용하면 부식약으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火와 같은 성질을 가진 부식제가 어떻게 火性의 酸粥에 의해 중화가 될까? 만일 당신이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내가 설명하는 것을 잘 듣길 바란다. 부식제에는 酸이외의 모든 味를 포함하고 있다. 즉 辛味가 주된 요소이지만 ‘anurasa(잡채된 미)’에는 鹹味가 있다. 알칼리의 鹹味가 酸味와 결합하면 苛性を 해제하고 현저하게 甘味를 부여한다. 이 甘味の 성질은 흡사 물이 불을 끄는 것과 같이 통증을 진정시킨다.”⁵⁵⁾

적당하게 소작하였을 경우 병이 낮고 경쾌해지고 점액의 분비가 정지한다. 소작이 충분하지 못했을 때에는 동통 · 搔癢 · 마비를 일으켜 병이 심해진다. 소작이 과도하였을 때에는 발열 · 종창 · 발적 · 점액 유출 · 지체의 극심한 동통 · 허탈 · 번갈 · 인사불성이 되거나 혹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알칼리 燒灼으로 생기는 상처는 病素의 성질과 병의 성질에 따라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가?

약자 · 유아 · 노인 · 겁쟁이 · 전신에 부종이 있는 환자 · 복부가 종창한 환자 · 대출혈성 환자 · 임신부 · 생리중인 부녀자 · 고열을 앓는 환자 · 비노기병을 앓는 환자 · 성질이 거친 사람 · 肺癆로 수척한 사람

54)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ュルタ本集「第11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55)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ュルタ本集「第11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p.32-33.

· 갈증으로 고생하는 사람 · 실신상태에 빠진 환자 · 거세된 사람 · 고환과 자궁의 위치가 위쪽으로 향하거나 혹은 아래쪽으로 향해 있는 사람은 부식제로 치료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급소 · 정맥 · 신경 · 관절 · 연골 · 봉합 · 동맥 · 후두 · 배꼽 · 발톱 · 음낭 · 공규 · 살이 적은 부위 및 두 눈에 부식제로 소작할 수 없다. 단 눈꺼풀의 병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부식제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일지라도 전신의 부종 ·骨痛 ·음식을 꺼리고 · 심장과 관절 동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부식제로 그 병을 치료할 수 없다.

이에 偈頌하길 :

“부식제를 우둔한 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마치 독 · 火 · 예리한 칼 · 천둥이 인명을 뺏는 것과 같다. 현명한 의사가 적당히 사용하면 부식제는 신속하고 맹렬하게 질병을 퇴치할 수 있다.”⁵⁶⁾

12. 燒灼法

『Suśruta-saṃhitā』 제1권, 제12장의 이름은 「agnikarmavidhyadyāya(火力燒灼法章)」이고 소작법에 대한 중요성과 사용방법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火는 치료에 있어서 부식제에 비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火로 소작하면 병이 재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약물 · śāstra · 부식제 등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火로 치료할 수 있다.

소작법의 중요한 용구는 다음과 같다. 즉 ‘pippaii(Piper longum, L. 荳蔻)’ · 산양의 糞 · 牛齒 · ‘śara(Saccharum Sara, L. 纖毛사탕수수)’ · 棒 · 探鍼 · ‘jāmbavāuṣṭha(소작용 봉)’ 철 혹은 기타 금속제품 · 蜜 · 糖蜜 · 油脂類이다.

그 중에 荳蔻 · 산양의 糞 · 牛齒 · 纖毛사탕수수 · 棒 · 探鍼은 피부에 사용하고, ‘jāmbavāuṣṭha(소작용 봉)’ 철 혹은 기타 금속제품은 근육에 사용하고, 蜜 · 糖蜜 · 油脂類는 정맥 · 신경 · 관절 · 골을 소작하는데 사용한다.

‘agnikarman(소작술)’은 여름과 가을 두 계절을 제외하곤 모든 계절에 행할 수 있다. 여름과 가을일

지라도 위험에 처한 병에는 소작술로 치료할 수 있으며 병증에 대응하여 소작술을 사용할 수 있다. 어떠한 질병을 막론하고 어떠한 계절을 막론하고 모두 粘滑한 음식물을 섭취한 뒤에 소작술을 행한다.

그러나 ‘mūrdhagarbha(난산)’ · ‘āsmari(방광결석)’ · 痔瘻 · 구강병에는 식이법을 취하지 않고도 수술을 행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소작술에는 피부소작과 근육소작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지만 정맥 · 신경 · 관절 · 골에서 소작을 시술할 수 있다.

피부를 소작할 때에는 소리를 질러 악취를 내보내고 피부가 수축하는 것을 본다. 근육을 소작할 때에는 鉛灰色을 띠고 약간 腫脹하고 동통이 생기며 상처가 마르고 수축한다. 정맥과 신경을 소작할 때에는 상처가 흑색을 띠고 부풀어 오르며 점액의 흐름이 그친다. 관절과 골을 소작할 때에는 그 부분이 거칠게 변하고 적갈색을 띠며 상처는 거칠고 딱딱해진다.

頭病과 ‘adhimantha(眼炎의 일종)’를 앓을 때에는 눈썹 · 이마 · 관자놀이에 소작한다. 눈꺼풀의 병을 앓을 때에는 연지를 바르는 액에 담근 면화로 눈꺼풀을 닦은 후에 속눈썹 모공에 소작한다. 피부 · 근육 · 정맥 · 신경 · 관절 · 골에 體風素性的 극심한 통증이 나타날 때, 상처 부위의 근육이 딱딱해지고, 감각이 없는 경우, ‘granthi(관절의 부종)’ · 痔核 · 腫瘍 · ‘apaci(瘰癧)’ · ‘ślipada(象皮病)’ · 疣 · 黑子 · 鼠蹊 모양의 ‘antravridhi(僵僕)’ · 관절 및 정맥을 절단할 때 · 瘻瘍으로 극심한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소작술을 행할 수 있다.

소작술은 병의 부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눈다. 즉 (1) ‘balaya(圓形)’ (2) ‘bindu(點狀)’ (3) ‘vilekhā(搔痕狀)’ (4) ‘pratisāraṇa(斑狀)’ 이 4가지는 소작법의 분류이다.

이에 偈頌하길 :

“의사는 환자의 징후와 급소와 몸의 강약을 알아야 한다. 병의 성질과 계절 등을 고려하여 적당하게 소작술을 결정한다.”⁵⁷⁾

적당하게 소작한 후에는 蜜 · 酥로 만든 고약을

56)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ュルタ本集「第11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33.

57)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ュルタ本集「第12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35.

바른다. 膽汁質의 사람·內出血의 환자·下痢하는 환자·외상으로 인하여 몸에서 이물을 뽑아낸 사람·약자·유아·노인·겁쟁이·농양이 다발하여 고통을 받는 사람·발한법을 금하는 사람은 소작법을 시행할 수 없다.

지금 여기에서 돌려서 소작의 징후를 서술한다. 火는 油脂類 또는 건조한 물질을 통하여 연소한다. 불에 잘 녹는 油脂質은 모세관도 투과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 들어가 곧 연소한다. 油脂質로 소작할 때에는 매우 통증을 느낀다.

소작에는 ‘pluṣṭa(焦性燒灼)’·‘durdagdha(不完全燒灼)’·‘samyagdagdha(完全燒灼)’·‘atidagdha(過度한 燒灼)’ 4가지가 있다. 그 중에 심하게 태워 나쁜 색깔로 변하는 것이 焦性燒灼이다. 膿胞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타는 듯한 열을 느끼고, 색깔이 붉고, 화농하여 통증이 생기고, 오래 지나서 비로소 낫는 것이 불완전소작이다. 완전소작은 소작이 너무 깊지 않고, 색깔은 성숙한 ‘tāla(Barassus flabelliformia, Murr. 종려나무)’의 열매와 같고 모양이 좋고 앞에서 언급한 징후를 수반한다. 과도하게 소작하였을 경우는 근육이 처지고, 몸이 풀어지고, 정맥·신경·관절·골이 심하게 상하고, 매우 뜨겁고 작열감이 있고, 번갈과 실신 등의 이어서 나타난다. 그 상처가 오랫동안 아물지는 않지만 癩痕의 색깔이 좋지 않다. 따라서 이상 4가지 화력으로 소작하는 징후는 의사 스스로 기술을 완성하는 목표표 삼아야 한다.

이에 偈頌하길 :

“火는 사람의 혈액을 격렬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인체의 膽汁素가 자극된다. 火와 膽汁素는 그 힘과 그味에 있어서 실체적인 방면으로 양자는 같은 것이지만, 火는 인체에 극심한 통증을 생기게 하고 자연 작열감이 생긴다. 갑자기 농포가 생기고 열이 높아지고 갈증이 심해진다. 다음에 소작의 결과를 중화시키는 요법을 설명한다. 焦性燒灼의 경우 濫灑法을 시행하고 따뜻한 음식물과 따뜻한 약을 준다. 몸이 현저하게 찌는 듯 더울 때에는 피도 따라서 끊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찬물은 피를 질게 한다. 따라서 따뜻한 것은 유익하지만 찬

것은 결코 안 된다.

不完全燒灼의 경우 의사는 차고 따뜻한 두 가지 치료를 해야 한다. 冷灑法은 酥를 바르고 냉수를 마시게 한다.

完全燒灼의 경우 의사는 ‘tugākṣīri(竹黃)’·‘plakṣa(Ficus infectoria, Roxb. 無花果亞科)’·‘cansana(Santalum album L. 白檀·旃檀)’·‘gāirika(代赭)’·‘amṛita(Tinospora cordifolia, Miers)’·酥·油脂質로 만든 연고를 발라준다. 가축·습지에 사는 동물 및 수생동물의 살을 갈아서 고탁을 만들어 이를 환부에 붙인다. 膽汁素性의 악성 농양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濕藥을 준다.

過度燒灼의 경우 의사는 허문 살을 제거하고 冷灑法을 시행한 연후에 米糖과 ‘tinduki(Diospyros Embryopteris, Pers. 柿屬)’의 껍질을 달인 것에 酥를 섞어 환부에 발라준다. ‘guḍūci(Tinospora cordifolia, Miers)’의 잎이나 수생식물의 잎을 상처에 덮어준다. 의사는 膽汁素性의 ‘visarpa(丹毒)’과 완전히 같은 치료를 한다. 밀납·蜜·‘rodhra(Symplocos racemosa, Roxb. 灰木屬)’·‘sarja(Shorea robusta, Gaertn. 沙羅雙樹)’의 수지와 이와 같은 것·‘mañjiṣṭha(Rubia munjista, Roxb. 茜草)’·‘candana(Santalum album, L. 檀香)’·‘mūrva(Sanserviera Roxburghiana, Schult)’를 잘게 갈아서 酥와 함께 달인다. 이는 일체 火力로 소작한 것을 아물게 하는 최상의 약이다. 油脂類로 소작한 경우에는 특히 乾式요법을 쓴다. 다음으로 연기로 질식된 경우의 증후를 말한다.

심한 기침과 재채기를 하고, 배가 뚜렷이 부르고, 기침이 잦고, 두 눈 주위가 타는 듯이 붉다. 환자는 연기를 품은 숨을 내뿜고 연기 이외의 냄새를 느끼지 못한다. 모든 음식 맛을 모르고 또한 귀는 청각을 상실한다. 갈증·작열감·열을 수반하고 마침내 인사불성에 빠진다. 연기에 질식하는 것이 이와 같다.

너는 그 요법을 들어라! 催吐法으로 酥와 감자액 혹은 포도액에 우유·砂糖液 혹은 단맛을 띤 酸液을 환자에게 준다. 토를 하면 내장이 깨끗해진다. 그리고 연기의 냄새도 없어지고 또한 이로 말미

암아 쇠약·채채기·열·작열감·실신·갈증·복창·호흡곤란·기침 등이 완화된다. 甘·鹹·酸·苦味로 양치질한다. 정확히 주위를 알아차리면 그의 의식은 명료해진다. 의사는 적당한 처방을 통하여 환자에게 淸涼한 약을 준다. 이럴 때 환자의 시각이 밝아지고 머리와 목이 상쾌해진다. 그런 다음에 환자에게는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준비한다. 熱風이 불거나 햇볕이 내려 쪼이는 경우에는 항상 냉각요법을 사용하고, 찬 비바람이 불어 동상이 생길 경우에 따뜻한 油藥을 사용한다. 번개로 인한 경우는 치료법이 전혀 없다. 낙뢰를 맞아도 생명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의사는 酥油類·軟膏·灌注藥·濕布 등으로 치료한다.”⁵⁸⁾

13. 水蛭吸法

『Suśruta-saṃhitā』 제1권, 제13장은 「jalāuka-avacāraṇīya-adhyāya(水蛭應用章)」이라 명명하였고, 어떻게 水蛭을 이용하여 惡血을 빨아내는지의 방법을 강술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 두 가지 다른 흡혈법 즉 吸角과 葫蘆를 대략 언급하였다. 이는 ‘Āyurveda(아유르베다)’에 ‘風’·‘膽’·‘痰’ 3病素로 입론의 근거로 삼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모두 ‘吸血法’이지만 병인에 따라 채용한 치료공구 역시 다르다.

개략적으로 말해서 吸血용구에는 角·蛭·葫蘆 3가지가 있다. 角은 濕性으로 ‘體風素’性的인 악화된 혈에 적용하고, 蛭은 冷性으로 ‘膽汁素’性的인 악화된 혈에 적용하고, 葫蘆는 乾性으로 ‘粘液素’性的인 악화된 혈에 적용하며 3병소가 공존할 때에는 세 가지를 병용한다.

水蛭은 흡혈에 사용하기가 가장 우수하다. 왕자·부자·소아·노인·겉쟁이·약자·부녀자·미소년에 대해 매우 적합하다.

角은 濕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體風素에 의해 악화된 혈액을 빨아내는데 사용한다. 蛭은 冷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膽汁素에 의해 악화된 혈액을 빨아낸다. 葫蘆는 乾性이기 때문에, 粘液素에 의해

악화된 혈액을 빨아낸다. 또한 體風素·膽汁素·粘液素의 3가지에 의해 악화된 혈액은 角·蛭·葫蘆로 빨아낸다.

이에 偈頌하길 :

“황소의 뿔은 熱·甘·濕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體風素에 침해된 혈액을 빨아낸다. 水蛭은 찬물 속에 살고 있고 甘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膽汁素에 침해된 혈액을 빨아낸다. 葫蘆는 辛·甘·苛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粘液素에 침해된 혈액을 빨아내는데 적용한다.”⁵⁹⁾

吸角子를 사용할 때에는 먼저 흡혈하려는 부위를 亂刺하고 흡각하는 주변을 얇은 형검으로 묶어서 흡각하려는 곳에 흡각기를 정확하게 조준하여 혈액을 빨아낸다. 혹은 표주박 속에 燈을 두어 흡혈법을 행한다.

‘jalāyuka(水蛭, jalāuka)’의 어원은 ‘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jala-ayuka’라 하고, 또한 ‘물을 처소로 삼는 것’이라는 뜻으로 ‘jala-oka’라 한다.

蛭에는 12종이 있고 그 중에 6종은 독이 있으며 다른 6종은 독이 없다.

有毒한 蛭에는 ‘kṛiṣṇā’·‘karvurā’·‘alagardā’·‘indrāyudhā’·‘sāmudrikā’·‘gocandanā’가 있다. 이 가운데 ‘kṛiṣṇā’는 색이 검고 머리가 크다. ‘karvurā’는 ‘varmi’라 칭하며 물고기가 길지만 하고 배에 주름이 있다. ‘alagardā’는 털이 뽀뽀하고 몸통이 굵고 주둥이가 검다. ‘indrāyudhā’는 무지개처럼 곡선이 그려진 무늬가 있다. ‘sāmudrikā’는 약간 暗黃色이고 여러 가지 색깔의 꽃무늬가 있다. ‘gocandanā’는 황소의 음낭같이 생겼고 몸통 아래 쪽 좌우가 주름져 있고 주둥이가 작다. 이러한 거머리에 물린 사람은 그 부위가 매우 붓고, 가렵고, 실신하고, 열이 나고, 타는 듯한 감이 있고, 惡心, 정신착란, 쇠약의 징후를 나타낸다. 이러한 때에는 ‘mahāgada’라는 해독제를 내복하고 아울러 바르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催嘔요법을 행한다. ‘indrāyudhā’에 물리면 불치이다. 이상 유독한 水蛭

58)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ュルタ本集「第11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36-37.

59)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ュルタ本集「第13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38.

과 그 치료법을 서술하였다.

無毒한 水蛭에는 ‘kapila’·‘pīngalā’·‘śaṅkumukhī’·‘mūsikā’·‘puṇḍarīkamukhī’·‘śāvarika’가 있다. ‘kapila’는 양측에 鷄冠石과 같은 색을 띠고 등에는 ‘snigdhamudga(Phaseolus, Mungo, var, L)’의 색깔을 나타낸다. ‘pīngalā’는 담홍색 또는 적갈색을 하고 몸은 둥글고 빠르게 운동한다. ‘śaṅkumukhī’는 肝臟의 색을 하고 흡착이 빠르고 주둥이가 길고 뾰족하다. ‘mūsikā’는 모양과 색깔이 쥐 모양을 하고 약취가 난다. ‘puṇḍarīkamukhī’는 ‘mudga(Phaseolus Mungo, L)’의 색을 띠고 ‘puṇḍarika(Nelumbium speciosum, Willd. 白蓮)’의 꽃과 같은 모양의 주둥이를 하고 있다. ‘śāvarika’는 매끄럽고 윤기가 있고 ‘padma(Nelumbium speciosum, Willd. 紅蓮)’의 꽃빛깔을 하고 길이가 18aṅgula이고 가축의 피를 빨아낼 때에 이용한다. 이상은 무독성 거머리에 관한 기재이다.

무해한 거머리는 ‘Yavana(그리시아 등 외국)’·‘Pāṇḍya(Dekhan의 지방)’·Sahya산맥·‘Pāutana(Mathurā지방)’ 등에서 생산된다. 이러한 지방에서 생산되는 것 가운데 몸집이 크고 힘이 센 것이 피를 빨아내는 것이 빠르고 굶주린 것이 특히 무독하다.

그러나 汚水에서 유독한 어류·곤충류·蛭·오줌·대변의 부패한 분해물에 살고 있는 것이 유독하다. 맑은 물일지라도 紅蓮·‘utpala(Nymphaea stellata, Willd. 青睡蓮)’·‘nalina(Nelumbium speciosum, Willd. 蓮의 변종으로 꽃이 약간 적색임)’·‘kumuda(Nymphaea Lotus, L. 百花수련)’·‘sāugandhika(Nymphaea Lotus, L. var. 앞에 것의 변종)’·‘kuvalaya(Nymphaea stellata, Willd. ‘utpala’의 변종으로 꽃이 붉다)’·‘puṇḍarika(Nelumbium speciosum, Willd. 白蓮)’·‘śaivāla(Blyxa octandra, Planch)’의 분해물에서 사는 것은 무독하다.

사육법 : 이러한 거머리를 잡아서 진흙과 연못물을 담은 새 항아리에 넣어 기른다. ‘śaivāla(Blyxa

octandra, Planch)’·마른 고기·수생식물의 뿌리와 줄기를 분말한 것을 준다. 또한 풀·수생식물의 잎을 깔아준다. 2-3일마다 신선한 물과 먹이를 주고 1주일마다 다른 항아리에 옮긴다.

용법 : 水蛭의 흡혈치료에 적합한 환자를 앉히거나 눕히고 환부가 아프지 않으면 점토와 소똥의 분말로 그 부위를 건조시킨다. 거머리를 잡아 芥子와 ‘rajani(Curcuma longa, L. 鬱金)’을 물과 함께 풀처럼 갠 것을 거머리 몸에 바르고, 잠시 물을 담은 잔에 넣어 피로가 풀린 것을 확인한 후에 이를 환부에 흡착시킨다. 백색의 얇고 젖은 면을 몸에 덮고 입만 노출시킨다. 빨지 못할 경우에는 우유나 피를 한 방울 떨어뜨려주거나 환부를 절개한다. 이렇게 해도 빨지 못할 경우는 다른 거머리로 바꾼다. 거머리의 주둥이가 馬蹄 모양을 하거나 어깨에 해당되는 부위가 높이 솟으면 잘 흡착되어 흡혈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젖은 수건을 덮어주고 물을 그 위에 떨어뜨려 준다. 흡착된 부위가 아프고 가려운 감이 있으면 깨끗한 피를 빨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거머리를 떼어낸다. 피 냄새를 좋아하여 떼어내기가 어려울 때에는 소금가루를 거머리 머리 부위에 뿌린다.

환부에서 떼어낸 거머리는 쌀겨를 몸에 발라주고 胡麻油와 소금을 주둥이에 바른다. 왼손 엄지와 식지로 꼬리를 잡고 오른 엄지와 식지로 천천히 눌러 문질러 뱃속의 피를 토하게 한다. 모두 토하게 한 후에 수반에 넣어주면 먹이를 구하려고 활발하게 운동을 한다. 물속에 가라앉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모두 토혈하지 않은 것으로 다시 토하게 한다. 모두 吐血하지 않은 거머리는 ‘indramada’라 하여 불치의 병에 걸린 것이다. 토혈한 것은 원래 항아리 속에 담가둔다. 의사는 유출된 혈액의 양에 근거하여 ‘적합’과 ‘부적합’을 고려한다. 출혈의 양이 적합하면 빨린 곳에 꿀을 바르고 냉수를 뿌려서 붕대로 감아준다. 출혈의 양이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收斂性·甘味性의 약물에 酥를 섞어 만든 冷卻性 연고를 상처 부위에 바르고 붕대로 감는다.⁶⁰⁾

60) 廖育群. 阿輪吠陀-印度的傳統醫學. 沈陽. 遼寧教育出版社

14. 혈액의 성질과 사혈요법

『Suśruta-saṃhitā』 제권, 제14장의 명칭은 「*śonitavarnīyādhyāya*(혈액의 성질)」이고 그 중에 음식물의 정화작용이 어떻게 혈액을 생성하고 사혈요법으로 질병을 치료할 때의 몇몇 상관되는 문제를 주로 강술하였다.

모든 음식물은 '5원소(地·水·火·風·空)⁶¹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4종류(食·飲·舐·咬)'가 있다. 음식물은 '6종의 미'와 '2종의 力(冷·熱)' 혹은 '8종의 力(冷·熱·濕·乾·淡·粘·軟·苛)'과 기타 여러 가지 성질로 구성되어 있다. 음식물을 적당하게 섭취하고

社. 2002 pp.108-109. “압력을 이용하여 배농하고 부식 제거를 목적으로 삼는 것은 한의학에서 湖南 長沙 馬王堆에서 출토된 의학저작인 『五十二病方』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최초에는 동물의 땀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후인들은 ‘角法’이라 칭하였고, 이러한 점에서 ‘Āyurveda(아유르베다)’와 일치한다. 그러나 한의학에서 ‘角’ 혹은 대나무 대롱·자기 등 여러 기물을 사용하여 농혈을 빨아내는 방법을 볼 수 있지만 ‘Āyurveda(아유르베다)’처럼 공구에 따라 다른 속성을 가졌거나 병인에 근거하여 다른 흡각 공구를 선택하는 사상은 없다. 거머리는 唐代 의학저작에서 거머리로 瘡瘍의 膿血을 빨아내는 기제가 처음으로 나타나고, 宋代 陳自明의 『外科精要』에서는 ‘蟻鍼’이라 하여 “治癰疽初作, 先以筆管一個, 入螞蟥一條, 以管口對瘡頭, 使螞蟥吮膿血, 其毒即散, 如瘡大須換三四條”라 하였다. 시간상으로 보면 중국에서 이 법을 채용한 것이 인도보다 훨씬 늦고 또한 ‘Āyurveda(아유르베다)’처럼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았다. 둘 사이에 전과가 있었는지는 사료에 기재된 것이 없다.

19세기 전반기에 F. J. V. Broussais라는 프랑스 의사가 주장하여 구주에서 水蛭로 흡혈수단으로 삼은 열기가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단지 원시요법이 종종 “다원적이고 독립적으로 발생한다”는 하나의 사례로 간단하게 본다면 아마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것이다. 당시에 사용한 흡혈의 水蛭은 수입에 의존하였기 때문이다. 1827년에 프랑스에서 수입한 水蛭은 3300만 마리고, 1833년에는 4300만 마리에 달하였다. 이러한 水蛭은 “醫蛭”(Hirudo medicinalis)이라 하였는데, “Hiru” 또한 일본어에서 ‘蛭’의 발음(ひる)과 흡사하다. 일본의 漢方의학이 중국에서 건너온 蟻鍼法을 배운 것만 알고 있지 일본에서 모종의 계발을 거쳤는지는 알 수 없다.”

61) 地(prthvi) : 저항을 나타내는 것, 고체. 水(ap 또는 jala) : 결합력, 액체. 火(tejas 혹은 agni) : 放熱, 火. 風(vāyu) : 운동, 진동, 변동, gas상태. 空(ākāśa) : 에테르, 공간(어근 : kāś=발산), 저항이 없는 것. (入門ア-ユルヴェーダ. B. Dash · M. Junius. 幡井勉 등 譯. 東京. 平河出版社. 1990. p.29.)

적당하게 소화시킨 후에 가장 미묘한 질을 가진 것을 만들어 건강미를 생성시키는 몸의 주된 요소를 ‘rasa(乳糜)⁶²라 한다. ‘rasa’는 심장에 자리하고 심장에서 24개의 동맥을 통하여(상행하는 것이 10개, 하행하는 것이 10개, 가로로 행하는 것이 4개) ‘볼 수 없는 원인의 작용’에 의해 밤낮으로 전신을 돌아 몸이 생장·보존·보양·생존한다.

이에 偏頌하길 :

“rasa의 액체는 인체의 (肝·脾)에 존재하는 건강한 ‘tejas(염색소)⁶³에 의해 적색으로 물든다. 이와 같이 교란되지 않는 것을 ‘혈액(rata, 赤生の 뜻)’이라 한다.”⁶⁴

부녀자 ‘rajas(월경)’이라 칭하는 혈액도 rasa에서 생성된다. 이는 12세에 시작하여 50세에 그치는 것이다. 태아는 ‘經水(火性)’와 ‘精液(冷性)’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月水는 火性이다. 그러나 ‘acārya(軌範師)⁶⁵는 사람의 혈액은 5대로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비린 성질·유동성·적색·빠른 움직임·가벼움 등 5가지 성질은 각각 地·水·火·風·空의 특징이며 혈액은 이러한 성질은 나타내고 있다. rasa에 의해 혈액을 생성하고, 혈액에 의해 육을 생성하고 육에 의해 지방을 생성하고, 지방에 의해 골을 생성하고, 골에 의해 골수를 생성하고, 골수에 의해 정액을 생성한다. 음식물에 의해 생성된 rasa는 이러한 조직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인체가 rasa에서 생긴 것을 알아야 하고 사려가 깊은 현자는 음식물과 섭생법에 주의하여 rasa를 잘 보살펴야 한다.”⁶⁶

62) ‘Āyurveda(아유르베다)’에서는 음식물의 에센스인 연소하는 물질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질일 뿐만 아니라, 맛으로 경험되는 성질이 있다고 하였다. ‘맛의 에센스’로 지각할 수 있는 것을 rasa라 한다. (入門ア-ユルヴェーダ. B. Dash · M. Junius. 幡井勉 등 譯. 東京. 平河出版社. 1990. p.43.)

63) 舊譯에는 火, 光, 威光, 威力 등이라 하였다.

64)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ュルタ本集 「第14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41.

65) 이해하거나 교수 행위를 하는 사람이 儀軌之人이다. 舊譯에는 師, 教授, 大師, 法師, 軌範師, 示道者 등이라 하였다.

66)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ュルタ本集 「第11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42.

‘rasa’라는 말은 ‘ras’⁶⁷⁾라는 語根에서 유래하였고, 이끌리는 것, 날마다 그치지 않고 변화하기 때문에 ‘rasa’라 칭한다. ‘rasa’는 매 3015 ‘kalā(1 ‘kalā’ = 2’ 26” 54/201 ; 3015 ‘kalā’ ≍ 5일)’마다 각기 하나의 조직 상태를 유지한다. 1개월 사이에 rasa는 남성의 정액과 여성의 경혈로 변한다.

‘rasa’는 음향·광선·물결이 전파되는 것과 같이 미묘한 특성에 의해 전신으로 흐른다. 최음제를 사용하면 약의 힘이 흡사 下劑의 작용과 같아 신속하게 정액을 배설시킨다. 예를 들어 꽃봉오리에 향기가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지만, 모두 실재하는 것을 나타내게 할 이유는 없다. 오직 그것이 미세하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잠재되어 있다. 혹은 시간이 흘러 꽃봉오리가 열리고 꽃잎이 활짝 피워 수술이 드러날 때 향기를 풍기는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소아라도 춘경이 발동할 시기에 이르면 남자는 정액이 흘러나오고 여자는 음모·월경이 나타난다. 여자의 월경이 증가함에 따라 유방과 자궁이 점차 커진다. 노인에 대해 말하자면 신체가 노쇠해진 결과 음식물에서 만들어지는 ‘rasa’가 영양하지 못한다.

‘vāta(體風素)’에 의해 침해된 혈액은 거품모양·적갈색 혹은 검은 색을 나타내고 점성이 없고 희박하여 유동성이 빨라 응고되지 않는다.

‘pitta(膽汁素)’에 침해된 혈액은 靑·黃·綠 혹은 갈색을 나타내고 생고기 냄새가 나서 개미·파리를 부르며 응고되지 않는다.

‘śleṣman(粘液素)’에 침해된 혈액은 代赭石을 물에 풀어놓은 듯하고 脂濕性과 冷性을 가지며 길고 점활하여 천천히 유동하고 고기냄새가 난다.

이 3가지 病素에 침해되면 혈액은 상술한 증후를 나타내고 길으로는 발효된 쉰 죽과 같고 특히 악취가 난다. 혈액 자체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에는 膽汁素에 침해된 것과 같고 심지어 진기한 맛이 난다. 2가지 병소에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두 병소의 징후가 섞여서 나타난다. 아래에 정상적인 혈액에 관하여 서술한다.

자연적인 즉 건강한 혈액은 연지처럼 붉은색을

67) 맛을 푹평하고, 맛을 느낀다는 뜻이다.

나타내고 너무 끈적거리지 않지만 또한 핏빛을 잃지 않는다. 자락법에 관해서는 따로 논한다. 여기에서는 자락해서는 안 되는 경우로 전신부종, 여원 사람이 신 음식을 상복하여 일으키는 부종, 황달 환자, 痔核을 앓는 환자, 폐결핵 환자 및 임신부의 부종만 언급한다.

‘śāstra’로 자락하는 법에는 ‘pracchāna(亂刺)’와 ‘sirāvyadhana(靜脈穿刺)’의 두 가지가 있다. 급소⁶⁸⁾·맥관⁶⁹⁾·신경·관절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śāstra’를 깊지도 않고 얕지도 않게 直刺, 快刺하고 날씨가 나빠서 부득이한 경우, 한기와 바람에 노

68) 廖育群. 阿輪吠陀-印度的傳統醫學. 沈陽. 遼育出版社. 2002. p.315. “한의학에서 인체에 특수한 의의의 ‘點’인 많은 ‘脈穴’이 있다고 하였다. 이 의학체계에서 말한 ‘經脈’과 ‘經穴’의 복잡한 관계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개괄할 수 없는 것처럼, 인도의학도 마찬가지로 인체에 존재하는 특수한 의의를 가진 약간의 ‘點’인 ‘marman’이 있다. 이러한 ‘點’과 ‘dhamani’, ‘sira’, ‘srotas’ 등 인도의학에서 말하는 ‘脈管’계통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도 하고 또한 완전히 예측되지 않은 복잡한 관계가 존재한다. ‘marman’의 뜻은 관절, (신체의) 노출 혹은 치명적인 부분, 약하거나 상해입기 쉬운 곳을 말한다. 漢譯으로는 骨節·死節·要處·氣脈·心膈이고, ‘末摩(mòmó)’로 음역한다. 불경 번역자는 ‘marman’을 ‘穴位’라 번역하지 않아 양자 사이에 본질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실제로 인도의 ‘marman’은 중국 武林에서 말하는 ‘穴道’의 개념과 다소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 밖에 일본의 柔道 술에 인체에 상해를 입히는 즉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중요 부위를 ‘當身’, ‘急所’라 한다. 그러므로 일본 ‘Āyurveda(아유르베다)’ 연구자는 ‘marman’을 음역하거나 ‘急所’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柔道이든 중국 무림의 ‘點穴大法’이든 그 형성 과정에서 인도문화의 영향을 받았는지, 일본의 ‘當身’, ‘急所’, 중국의 ‘穴道’, 인도의 ‘marman’ 사이가 전혀 관계가 없었는지, 또는 침투하였는지 여부 모두 아직까지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문제이다.”

69) 廖育群. 阿輪吠陀-印度的傳統醫學. 沈陽. 遼育出版社. 2002. p.307. “脈의 형태는 도관과 통로이고 그 기능은 五肢에 기체 상태나 액체 상태의 물질을 수송한다. 한의학적인 술어인 ‘脈’은 直行하는 간선인 ‘經’과 橫行하는 지선인 ‘絡’을 포함하고 있고, 그 속에 운행하는 것은 ‘氣’와 ‘血’이다. 서양의학은 ‘脈管系’라고 칭하며, 동맥·정맥·림프계통을 포함하고 있고, 그 속에 운행하는 것은 혈액과 림프액이다. 인도의학에서 ‘脈’의 개념에 해당되는 어휘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dhamani’·‘sira’·‘srotas’·‘hira’·‘snayu’가 포함되어 있다. ‘dhamani’는 (脈管에) ‘충만된(dham-)’것에 유래하였고, ‘sira’는 ‘유동적인 물질(sarana)’에서 뜻을 취하고, ‘srotas’는 ‘혈액의 유동(srvana)’에서 유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hira’는 Veda에 나타나고 脈管을 뜻한다.”

출된 경우, 땀이 나지 않을 때나 공복일 경우에는 혈액이 농후해져 전혀 출혈이 되지 않거나 출혈량이 매우 적다.⁷⁰⁾

이에 偁頌하길 :

“중독 또는 술에 취한 자, 피로한 자, 風氣·대소변이 불통하여 고생하는 사람, 잠에 빠지는 사람, 공포에 떠는 사람은 혈액이 흘러나오지 않는다.”⁷¹⁾

惡血에 제거되지 않으면 가렵고, 붓고, 발적하고 발열·화농·동통이 생긴다. 날씨가 매우 더운 날, 환자가 땀이 나지 않을 경우 또는 우매한 시술자가 과도하게 자극하였을 때에는 출혈이 과다하게 된다. 출혈이 과다하면 극심한 두통·실명·‘adhimanth(眼炎)’·‘timira(黑内障)’이 발생하고, 소직 소모·경련·반신불수·지체마비·갈증·발열·말꼭질·해수·천식·황달·죽음을 초래한다.

70) 廖育群. 阿輪吠陀-印度的傳統醫學. 沈陽. 遼寧出版社. 2002. p.324. “한의학에서 경락학설 및 여러 腧穴에 관한 기술은 침구요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穴位는 침구요법을 위해 존재한다. 인도의학인 불경에서 침구에 관한 적지 않은 기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長阿含經』·『法華經』·『圓覺經』·『成實論』·『灌頂經』 등이다. 그러나 福永勝美에 의하면 상술한 불경의 원본에는 침구요법을 언급한 어떠한 글도 없다. ‘침구’에 관한 불경의 기재는 대부분 불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과 윤색을 가하여 만들어진 결과라고 하였다(『불교의학사전』, 일본, 雄山閣, 1990. pp.200-201) 그러나 역사적으로 본다면 사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먼저 오늘날의 침구요법에 대한 정의를 버리고, ‘九鍼’의 형식과 용도에 관하여 『黃帝內經』에 기재되어 있는 것에 입각하여 그 시대의 ‘중국 침구’와 ‘인도 외과’를 비교 관찰한다면 양자 사이에 공통점이나 비슷한 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九鍼’은 원래 각종 외과기계의 집합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毒藥(藥物)治其內’에 상응되는 말로 침구요법의 원시적인 본질은 皮·肉·筋·脈의 외치법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인도의학에서 ‘銳器’로 인체에 시술하는 여러 외치법인 이른바 ‘외과’를 ‘침구’술로 불경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밖에 침구요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독특한 점 즉 경락학설을 기초로 삼고, 인체 腧穴을 매개로 삼고, 기혈보사의 각종 수법에 관한 것 등을 고려한다면, 인도의학의 外治法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인도의학에서 침구요법과 가장 비슷한 것은 ‘刺絡’으로 그 본질은 단지 ‘放血療法’이기 때문이다. Suśruta-saṃhitā 제3권, 제8장 ‘刺絡法’을 통하여 침구요법에 대해 다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두 의학 체계 사이에 이러한 방면에 여러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71)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ュルタ本集「第14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43.

이에 偁頌하길 :

“따라서 의사는 흡지도 덤지도 않는 날에 환자가 땀을 낼 때에 또한 피약별을 쪼이지 않았을 때에 환자에게 끓인 물을 마시게 하고 혈액을 제거한다. 혈액이 적당하게 흘러나와 자연스럽게 그치면 자락이 잘되어 혈액이 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지고 동통이 진정되며 앓는 병이 그쳐 정신이 안정되는 것이 적당한 자락의 징조이다. 자락에 습관을 들인 사람은 피부병·結節腫·腫瘍 및 기타 혈액으로 생기는 병들이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혈액이 순조롭게 유출되지 않으면 ‘ela(Elettaria Cardamomum, Maton, 小豆蔻)’·‘śītaśīva(Anethum Sowa, L.)’·‘kuṣṭha(Saussurea auriculata, Bht. et. Hf)’·‘tagara(Tabernaemontana coronaria, Br. 挾竹桃科)’·‘pāṭhā(Stephania hernandifolia, Walp)’·‘bhadrādāru(Pinus Deodara, Roxb)’·‘viḍaṅga(Embelia Ribes, Burm)’·‘citraka(Plumbago zeylanica, L. 인도자스민)’·‘三辛(胡椒·葦芨·乾薑)’·‘āgāradhūma·haridrā(Curcuma longa, L.)’·‘arka(Calotropis gigantea, Br. 蘿摩科)’의 어린 싹, ‘naktamāla(Pongamia glabra, Vent. 五葉藤)’ 등의 열매에서 3종 또는 4종 혹은 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분말하여 芥子油와 소금을 섞어 풀처럼 만들어 상처에 바른다. 이렇게 하면 혈액이 적당하게 흘러나온다. 피가 과다하게 나올 경우 ‘rodhra(Symplocos racemosa, Roxb. 灰木屬)’·‘madhuka(Glycyrrhiza glabra, L. 감초)’·‘priyaṅgu(Aglaia Roxburghiana, Miq. 樹蘭屬)’·‘pattaṅga(Caesalpinia Sappan, L. 蘇方)’·‘gāirika(代赭)’·‘sarja(Shorea robusta, Gaertn. 娑羅雙樹)’의 수지, ‘rasāñjana(Berberis asiatica, Roxb. 小檗屬)’·‘salmali(Bombax malabaricum, DC. 면)’의 꽃, 달팽이껍질·조개껍질·‘maṣa(Phadeoulus Mungo, L. Var. radiatus. 녹두)’·‘yava(Hordeum sativum, Jess. Var. Vulgare. 大麥)’·‘godhūma(Triticum vulgare, Will. 小麥)’의 분말을 천천히 상처에 살포하고 손가락으로 누른다. 혹은

‘sala(Shorea robusta, gaertn. 娑羅雙樹)’·‘sarja(같은 변종)’·‘arjuna(Terminalia Arjuna, W. d. A. 使君子科)’·‘arimeda(Acacia Farnesiana, Willd. 金合歡)’·‘meśaśriṅga(Rhus succedana, L. 옷나무에 자라는 蟲癭)’·‘dhava(Anogeissus latifolia, Wall. 使君子科)’·‘dhanvana(Grewia elastica, Royle. 田麻科)’·‘tvak(Cinamomum Cassia, Bi. 계피)’의 분말 혹은 亞麻布를 태운 재나 烏賊骨의 분말을 전술한 바와 같이 상처부위에 뿌리고 손으로 눌러준 다음에 고약을 발라 붕대로 묶어준다. 환자에게 시원한 옷을 입혀 찬 음식을 주며 시원한 방에 머물게 하고 냉수를 뿌리고 냉각성 도포제를 발라준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혈이 되지 않을 때에는 알칼리 또는 불로 환부를 소작한다. 혹은 찬자한 부 조금 아래 피가 많이 흐르는 정맥을 천자한다. ‘Kakoly-ādi(제17族 약물)’의 煎劑 혹은 砂糖·蜜·糖蜜을 섞은 액을 마시게 한다. 혹은 ‘eṇa(혹색 羚羊)’·‘hariṇa(Antilope cervicapra. 영양의 일종)’·羊·兎·水牛·野의 피를 마시게 한다. 그리고 짓이나 콩죽 혹은 육즙과 酥로 만든 매우 부드러운 액과 함께 식사를 한다. 병발증이 나타날 경우 정황을 보아 적당한 치료를 한다. 혈액은 몸의 근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여 혈액을 보존해야 한다. ‘혈액은 생명’이라는 것은 불변의 금언이다.”⁷²⁾⁷³⁾

15. 流體原素·組織·排泄物

『Suśruta-saṃhitā』 제1권, 제15장의 편명이 ‘doṣa-dhātu-malakśaya-vṛiddi-vijñāniya(流體原素、組織、排泄物에 관한 지식의 章)」이다. ‘流體原素’는 즉 風·膽·痰 3요소이고, ‘組織’은 인체 속으

72) 大地原誠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ュルタ本集「第14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p.44-45.

73) 이상의 논설에서 부녀자의 경혈을 특수한 ‘血’로 보았다. 이는 월경의 혈은 남자의 정액에 상당하는 것으로 이는 모두 신체 조직 변화의 제7단계에서 형성되지만 일반적인 ‘혈액’은 제2단계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는 한의학에서 부녀자의 경혈을 ‘天癸’라 칭한 것과 비슷하다. 『黃帝內經·素問·上古天真論』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타난다. “女子七歲腎氣盛, 齒更髮長. 二七而天癸至,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故有子……七七任脈虛, 太衝脈衰少, 天癸竭, 地道不通, 故形壞而無子也.”

로 들어와 ‘rasa(乳糜)’에서 정액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부단히 변화하는 7종의 물질 형태이고, ‘排泄物’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대소변, 땀을 포함하여 유즙, 經水와 胚胎에 이른다. 현대과학의 용어로 부회시키면 신진대사에 관한 생리와 병리 같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장은 이러한 내용을 함께 집합하여 논설한 것으로 인체 생리에 대한 고대 인도인의 이성적인 사유방식과 ‘Āyurveda(아유르베다)’ 이론체계의 틀과 패턴을 체현하였다.

‘tridoṣa(流體原素)’·‘dhātu(組織)’⁷⁴⁾·‘mala(排泄物)’은 신체의 근원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vāta(體風素)’ : 운동 작용·자극전달 작용·음식을 보급하는 작용·분리 작용(乳糜와 배설물)·괄약을 유지시키는 작용(대변·소변·정액) 등 5가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신체를 유지한다.

(2) ‘pitta(膽汁素)’ : ‘rasa’에 적색을 부여, 음식을 소화시키는 작용, 정력과 건강한 기색을 부여, 지력을 낮고 체온을 발생시키는 등 5가지 다른 특성이 있다. 火의 작용을 통하여 신체의 보건을 돕는다.

(3) ‘śleṣman(粘液素)’ : 관절을 연결시키는 작용, 신체를 윤택하게 하는 작용, 상처를 낫게 하는 작용, 신체를 비만하게 하는 작용, 힘과 강인성을 부여하는 작용 등 5가지 특성이 있다. 물의 작용에 의해 신체의 건강을 돕는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rasa(乳糜)’ : 전신에 만족과 기쁨을 주고, 혈액을 증식시킨다.

② ‘rakta(血液)’ : 안색을 좋게 하고 근육을 증식시키고 활기를 불어 넣는다.

③ ‘māṃsa(肉)’ : 몸을 증가시키고 지방을 증식시킨다.

④ ‘medas(脂肪)’ : 몸을 강건하게 하고 윤

74) 신체를 구성하는 조직의 요소에는 7가지가 있어 즉 乳糜·血液·肉·脂肪·骨·骨髓·精液이다. 이러한 조직의 요소는 모두 ‘五大’에서 유래한다. 조직의 요소에 따라 하나 혹은 두 가지 元素가 우세한 지위에 있다. 즉 乳糜는 水, 血液은 火, 肉은 地, 脂肪은 地, 骨은 風과 空, 骨髓은 火, 精液은 水의 元素가 우세하다.

택하게 하고 발한시키며 골을 증강시킨다.

⑤ ‘asthi(骨)’ : 몸을 지지하고 골수를 증강시킨다.

⑥ ‘majjan(骨髓)’ : 즐거움과 기쁨지고 윤택하게 하고 힘을 부여하며, 정액을 늘여 골을 충실하게 한다.

⑦ ‘śukra(精液)’ : 강건·운동·쾌락·체력·춘정의 발동과 생식을 가져준다.

⑧ ‘puriṣa(糞)’ :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결한 것이고, 體風素와 消化火를 지탱한다.

⑨ ‘mūtra(尿)’ : 방광을 채우고 축축하게 적시게 한다.

⑩ ‘sveda(汗)’ : 피부를 축축하게 적시고 부드럽게 한다.

⑪ ‘ārtava(經水)’ : 혈액의 특징이 있고 수태를 하게 한다.

⑫ ‘garbha(胚)’ : 임신의 특징이다.

⑬ ‘stanya(乳)’ : 유방을 팽창시키고 생명을 지탱한다.

상술한 體風素에서 排泄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위생의 법칙을 지켜야 한다.

다음은 流體원소·조직·배설물이 감쇠하는 징후를 말하겠다. 이러한 것들의 감쇠는 淸淨劑·鎮靜劑의 남용, 생리적인 충동을 억제, 비위생적인 음식, 심통·과로·금식·방사과도 등으로 일으킨다.

體風素가 쇠약하면 운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말이 줄어들고, 우울해지고, 의식이 몽롱해진다. 膽汁素가 쇠약하면 체온이 저하되고, 消化火가 약해지며 피부에 광택이 사라진다. 粘液素가 쇠약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체내에 불이 붙는 듯 열감을 느끼고,胃口 기타(胸·頸·頭) 粘液素가 자리한 곳이 공허해진 느낌이 들고, 관절이 이완되고, 갈증·쇠약·불면증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각종 流體原素를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는 물질로 치료한다.

rasa가 쇠약하면 심장에 압박감이 있고, 전신이 떨리고, 공허해지고 갈증을 느낀다. 血液이 衰竭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신 것과 찬 것을 먹고 싶고, 정맥이 이완된다. 筋肉이 줄어들면 唇·脣·

陰部·腿·胸·腰·腓·腹·項이 수척해지고 수족이 마르면서 아프고 동맥이 약해져 늘어난다. 脂肪이 줄어들면 脾臟이 腫大하고, 관절이 텅 빈 듯한 감이 있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지방이 풍부한 고기를 원한다. 骨質이 줄어들면 뼈마디가 아프고, 이빨과 손발톱이 상하고, 몸이 건조 해진다. 骨髓가 줄어들면 정액의 분비가 감소하고 관절에 동통이 생기고 뼈가 쭈시면서 몸속이 빈 듯한 감이 있다. 정액이 줄어들면 음경과 음낭이 아프고 교접할 수 없으며 사정에 힘이 없고, 정액을 배설하더라도 외관상으로 혈액으로 생성된 성분이 결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⁷⁵⁾. 이럴 경우에는 각 조직을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는 약물로 물질로 치료한다.

배변작용이 약해질 경우 가슴과 옆구리가 아프고, 風氣로 인한 腸鳴이 배속에서 위로 향해 끊는다. 泌尿작용이 약해질 경우 방광에 통증이 있고 소변량이 감소한다. 이럴 경우에는 대소변을 증가시키는 약물로 치료한다. 땀의 분비가 줄어들 경우 모공이 막히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축적이 둔해진다. 땀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연고를 바르고 발한시키는 요법을 행한다. 월경의 양이 줄어들거나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월경의 양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자궁에 동통이 생긴다. 이럴 경우에는 淸淨劑를 시행하고 火性의 약제를 처방한다. 유즙이 줄어들 경우에는 유방이 위축되고 유즙의 분비가 정지되거나 유출되는 양이 적어진다. 이럴 경우에는 粘液素를 증가시키는 약물을 쓴다. 태아의 영양이 결핍되었을 경우에는 태동이 감지되지 않고, 복부가 불러오지 않고 도리어 위축된다. 이럴 경우의 요법은 8개월에 이르렀을 때에 乳汁를 주사하고 아울러 자양물이 풍부한 음식을 공급한다.

다음으로는 流體原素·組織·排泄物이 과잉되는 특징을 말하겠다. 이는 이러한 것들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각기 증가를 촉진시키는 물질을 남용했기 때문에 생긴다. 體風素가 과잉되었을 경우 피부가 쪼그라들고, 몸이 야위고, 얼굴이 검어지고, 수족이 떨리고, 따뜻한 것을 좋아하고, 불면증이 생기고, 쇠약해지고, 변비를 일으킨다. 膽汁素가 과잉되었을

75) 문맥으로 보면 ‘정액이 묽고 찬(淸冷) 것’을 말한다.

경우 피부가 누렇게 되고, 극심한 열이 나고, 찬 것을 좋아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실신하고, 체력이 소실되고, 감각기능이 약해지고, 대소변과 눈이 누렇게 변한다. 粘液素가 과잉되었을 경우 몸에 핏기가 없고, 차가워지고, 딱딱해지고, 무겁고, 이완·권태가 생기고, 자꾸 잠이 오고, 관절과 골이 이완된다. rasa가 과잉되었을 경우 오심·구토가 생긴다. 血液이 과잉되었을 경우 지체와 눈이 충혈되어 적색으로 변한다. 筋肉이 과잉되었을 경우 髀·頰·脣·陰部·腿·腕·脛이 비대해지고 몸이 무거워진다. 脂肪이 과잉되었을 경우 몸에 지방이 풍부해지고 배와 옆구리가 비대해지며 아올러 기침·호흡곤란·악취가 나타난다. 骨質이 과잉되었을 경우 뼈와 치아에 이상발육이 생긴다. 骨髓가 과잉되었을 경우 온몸과 눈이 무겁게 가라앉는다. 精液이 과잉되었을 경우 精에 결석이 생기고 또한 정액이 대량으로 유출된다. 糞便이 과다해지면 복부가 창만하고 하복부에 극심한 동통이 생긴다. 泌尿가 과다해지면 소변량이 증가하고, 소변이 짙고, 방광이 아프고 腸이 부른다. 汗腺의 분비가 과다하면 피부에 악취와 가려움증이 생긴다. 月經이 과다하면 관절이 아프고, 월경이 과다하게 흘러나오면서 쇠약해진다. 乳汁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유방이 부풀어 오르고 젖이 자주 나오고 동통을 수반한다. 태아의 영양이 과다하면 복부가 팽창하고 부종이 생긴다. 이와 같이 流體原素·組織·排泄物이 과다한 경우에 이를 감소시켜서 다른 장애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요법을 통하여 정화와 진정을 모색해야 한다.

“組織에 있어서(전술한 乳糜·血液·精液의 순서에 따라) 전자의 과잉이 순차적으로 후자의 과잉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직들의 과잉을 감쇄시키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하다.”⁷⁶⁾

다음은 ‘bala(활력)’의 특징과 쇠약할 때의 특징을 말하겠다. ‘rasa’에서 精液에 이르는 7조직의 정수는 ‘tejas(勢力素)’·‘ojas(活力素)’로 이를 ‘활력’이라 칭한다. 이것이 本書의 정론이다. ‘활력’에 의

해 근육이 강하고 비대해지며 모든 활동에서 장애가 없고, 성음과 색깔이 맑아지고 내외의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용하게 한다.

이에 偈頌하길 :

“活力素는 ‘soma(酒神 또는 月神)’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脂濕性이 풍부하고 白色과 冷性으로 지체를 공고케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유동성이 있고, 깨끗하고 軟性·粘性を 나타내며 생기의 가장 위쪽에 자리하고 있다. 活力素는 인체의 모든 부분에 널리 퍼져있기 때문에 活力素가 상실되면 사람의 몸은 훼손된다. 活力素는 外傷·消耗症·怒·憂·禪定·苦行·饑餓로 인하여 耗損된다. 이러한 것들의 원인으로 組織液의 흐름이 상실되고 이러한 흐름이 상실되면 勢力素가 교란되어 사람의 활력은 이완된다.”⁷⁷⁾

弛緩·攪亂·衰耗가 병적 활력소의 특징이다. 관절이 늘어나고, 전신이 권태롭고, 流體原素가 교란을 일으키고, 운동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활력소가 ‘이완’ 상태의 징후이다. 신체가 마비·둔중해지고 體風素性의 증창이 나타나고, 안색이 좋지 못하고, 쇠약해지고, 권태롭고, 잠이 오는 것이 ‘교란’ 상태의 특징이다. 인사불성·消瘦·정신착란·섬어 혹은 사망이 ‘衰耗’의 특징이다.

이에 偈頌하길 :

“활력에는 3가지 이상상태가 있어 즉 이완·교란·衰耗이다. 지체의 이완과 권태, 流體原素의 쇠갈, 피로, 동작이 활발하지 못한 것이 활력이 이완된 징후이다. 지체의 둔중·마비·허탈·안색의 악화·권태·嗜眠·체풍소의 증창이 생기는 것이 활력이 교란된 징후이다. 실신·수척·정신착란·譫語·혼수·죽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衰耗의 징후이다.”⁷⁸⁾

이완과 교란의 경우 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특수한 치료법을 통하여 활력을 왕성하게 하여도 의식을 잃어버리는 등의 단계에 이르면 치료를 단념해야 한다.

77)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ュルタ本集「第15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49.

78)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ュルタ本集「第15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49.

76)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ュルタ本集「第15章」.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p.48-49.

‘tejas(勢力素)’에는 또한 火性을 가지고 있고 서서히 연소시키는 조직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脂澤性이 있는 ‘vasā(膏質)’로 부인에게 특히 뚜렷하여 이 물질에 의해 몸이 연해지고, 주리가 섬세해지고, 털이 연하면서 적어지고, 의지력이 견고해지고, 시력이 강해지고, 소화가 잘되고, 곱고 아름답게 된다. 澁·苦·冷性, 기름기가 없고 소화되지 않는 음식, 생리적인 충동의 억제, 과도한 성교·운동·질병 등에 의해 膏質은 악화된다. 膏質의 ‘이완’ 상태가 있어도 피부가 거칠어지고, 안색이 나빠지고, 동통이 생기고, 광택이 사라진다. 또한 膏質이 ‘교란’ 상태에 있으면 몸이 수척해지고, 소화가 불량해지고, 잘 넘어진다. ‘衰耗’ 상태에 있으면 시력과 소화작용의 힘이 약해지고 體休風의 부조로 질병을 발생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른다. 膏質이 衰耗한 경우에도 脂油藥을 내복하고 塗劑·膏藥을 바르고 灌水하고 지방이 풍부하고 소화되기 쉬운 음식을 준다.

IV. 結 論

이상과 같이 논자는 인도전통의학의 3대 경전 가운데 하나인 『Suśruta-saṃhitā(妙聞集, 수슈르파상히타)·總說篇(Sūtrasthāna)』 가운데 1장부터 15장까지 관한 간단한 분석과 번역을 통하여, 그 연구 결과를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요약하기로 한다.

1. 인도 전통의학의 기본이론에 관하여 本書의 제1, 2, 3, 4, 5, 14, 15장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 제1장의 편명은 「베다의 기원(Vedotpattiyādhyāya)」이며, 이 편장은 ‘Āyurveda(아유르베다)’의 개황과 ‘人·病·藥·醫’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밝히고 있어 全書의 ‘序論’에 해당 된다.

2) 제2장의 편명은 「學生入門章(Siṣyopanayanīyādhyāya)」이며, 의학을 배우는 자가 구비해야 하는 조건과 스승을 모시고 의학을 배우는 규범을 강술하고 있다.

3) 제3장의 편명은 「學習傳授章

(Adhyayanasaṃpradānīyādhyāya)」이며, 이 편장은 경론을 습득하는 방법을 강술한 것 이외에 주로 학습에 반드시 중시해야 하는 책과 실천 두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4) 제4장의 편명은 「釋義(Prabhāsanīyādhyāya)」이며, 그 主旨는 ‘理解’와 ‘博學’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5) 제5장의 편명은 「醫療必需品(Agrapaharonīyādhyāya)」이며, 의료과정을 3단계 즉 시술 전 준비, 요법의 선택, 시술 후 처치로 개괄하고 있다. 여기에서 3방면에 대해 모두 언급하였지만 전면적으로 논술하지 않아 기타 장절과 서로 참조해야 상세하게 알 수 있다.

6) 제14장의 편명은 「혈액의 성질(ṣoṇitavarṇīyādhyāya)」이며, 그중에 음식물의 정화로움이 어떻게 혈액을 생성하고 그 성질은 어떠한지, 또한 사혈요법으로 질병을 치료할 때의 몇몇 상관되는 문제를 주로 강술하였다.

7) 제15장의 편명은 「流體原素、組織、排泄物에 관한 지식의 章(doṣa-dhātu-malakāsaya-vṛiddi-vijñānīya)」이다. ‘流體原素’는 즉 風·膽·痰 3요소이고, ‘組織’은 인체 속으로 들어와 ‘rasa’(乳糜)에서 정액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부단히 변화하는 7종의 물질 형태이고, ‘排泄物’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대소변, 땀을 포함하여 유즙, 經水와 胚胎에 이른다. 현대 용어로 부회하자면 신진대사에 관한 생리와 병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편장은 이러한 내용을 함께 집합하여 논술한 것으로 인체 생리에 대한 고대 인도인의 이성적 사유방식과 ‘Āyurveda(아유르베다)’ 이론체계의 틀과 패턴을 체현하고 있다.

2. 진단요법에 관하여 本書의 제10장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 제10장의 편명은 「viśikhānupraveśanīyādhyāya(往診章)」이며, 이 편장에는 의학을 배우는 자는 어떠한 조건을 구비해야 ‘왕진’을 갈 수 있는 지에 관한 行醫의 자격을 주로 강술하였다. 또한 질병의 ‘진찰

(vijñāna-upāya)’의 방법에 있어 ‘聽官(srotra=indriya)’, ‘觸官(sparśana-indriya)’, ‘視官(cakṣur-indriya)’, ‘味官(rasa-indriya)’, ‘嗅官(ghrāṇa-indriya)’, ‘問診(praśna)’의 6종류를 방법을 논술하고 있다.

3. 외과요법에 관하여 本書의 제7, 8, 9, 11, 12, 13장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 제7장의 편명은 「鈍器用法章(yantravidhyādhyāya)」이며, ‘얀트라(yantra)’는 날이 없는 외과공구인鈍器를 뜻하며, 이물이 체내에 들어오면 정신과 육체에 고통을 주는 śaya를 제거하는 方便으로 101종이 있다. ‘얀트라(yantra)’를 크게 구분하면 6종류이며, 시술방법은 24종이 있다.

2) 제8장의 편명은 「śāstra용법(śāstrāvacāraṇiyandhyāya)」이며, ‘Śāstra(銳器)’의 원래 뜻은 칼·화살·무기를 뜻하며, 이는 날이 있는 기구로 오늘날 말하는 ‘메스’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śāstra’는 20종이 있으며, ‘외과수술’(śāstra-karman), ‘외과의’(śāstra-karman-krt) 등의 말이 모두 여기에서 기원하였다.

3) 제9장의 편명은 「yogyāsūtriyādhyāya(演習法章)」이며, 이 편장에 기술된 내용은 의사가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책에 언급된 지식에서 실제 조작까지의 수술 기술을 연습시키며, 약제를 어떻게 사용하는 실습방법에 관한 내용을 논술하고 있다.

4) 제11장의 편명은 「腐蝕劑의 제조법과 用法章(Kṣāra-pāka-vidhyādhyāya)」이며, ‘Āyurveda(아유르베다)’에서 특수약물 영역인 ‘kṣāra’(腐蝕劑)를 소개하고 있다. 부식제는 切除·切開·亂刺術을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毒素의 부조를 제거할 수 있으며, 외용(pratisāraṇiya)과 내복(pāniya)의 방법에 따라 軟·中·峻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5) 제12장의 편명은 「火力燒灼法章(agnikarmavidhyādhyāya)」이며, 이 편장에는 약물·śāstra·부식제 등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불로 燒灼하여 치료하면 재발하지 않음을 파악하여, 소작법의 용구 및 4가지 소작술(agnikarman)에 관

하여 소개하고 있다.

6) 제13장의 편명은 「水蛭應用章(jalāuka-avacāraṇiya-adhyāya)」이며, 어떻게 ‘水蛭’을 이용하여 惡血을 빨아내는지의 방법과 사육법 등에 관하여 강술하였다. 그러나 그중에 두 가지 다른 ‘吸血法’ 즉 ‘吸角’과 ‘葫蘆’를 대략 언급하였다. 이는 ‘Āyurveda(아유르베다)’에 ‘風’·‘膽’·‘痰’ 3病素로 입론의 근거로 삼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모두 ‘吸血法’이지만 병인에 따라 사용한 치료 공구 역시 다르다.

4. 양생요법에 관하여 本書의 제6장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 제6장의 편명은 「季節養生(ṛtucaryādhyāya)」이며, ‘한순간’에서 ‘5년 주기’에 이르는 사이 10개의 시간 단위를 상세히 소개하였고 중점을 둔 것은 1년 6계절에 순응하는 자연의 ‘養身之道’이다. 이는 중국 秦漢시기의 ‘陰陽家’와 ‘醫家’가 ‘四時의 차서’를 강구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인도의 역법은 1년을 6계절로 나눈 것이 중국과 다른 점이다.

본자가 본문에서 조사한 내용이 제한된 부분임을 미리 밝혀 두며, 미비점은 새로운 사료의 수집과 인접 분야 연구 결과의 도움을 받아 뒷날 수정·보완하고자 한다.

參考文獻

1. 金基郁, 朴炫局, 徐志泳. 아유르베다(Āyurveda)의 醫經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7. 20(4). p.93, 105, 116
2. 廖育群. 阿輪吠陀-印度的傳統醫學. 沈陽. 遼寧教育出版社. 2002. p.19, 307, 315, 324. pp.108-109.
3.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ユルタ本集. 東京. たにぐち書店. 1993. p.2, 3, 4, 6, 8, 9, 10, 11, 12, 13, 14, 15, 19, 21, 22, 25, 27, 28, 30, 32, 33, 35, 38, 41, 42, 43, 49. pp.2-3, 5-6, 32-33, 36-37, 44-45, 48-49.
4. 馬伯英. 中外醫學文化交流史. 上海. 文匯出版

社. 1993. p.117.

5. B. Dash・M. Junius, 幡井勉 譯. 入門アユルヴェーダ. 東京. 平河出版社. 1990. p.29, 43.

6. 矢野道雄. インド醫學概論. 東京. 朝日出版社, 1988. pp.10-13.

7. 吉熙星. 印度哲學史. 서울. 民音社. 1984. p.24, 27, 40, 81, 86, 116, 119.